

강진호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윤홍길의 분단소설 연구

서사적 특성과 주제구현 양상을 중심으로

2005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김 소 희

윤홍길의 분단소설 연구

서사적 특성과 주제구현 양상을 중심으로

강진호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김 소 희

인 준 서

김소희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2004년 12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한국 문학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현재까지 꾸준히 다루어져 온 소재는 ‘한국 전쟁과 분단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한반도 내의 분단 상황으로 인한 민족적·개인적 현 문제와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담은 분단문학의 역사적 전개는 앞으로도 한국 문학사에서 지속적이고 확장적인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한국의 분단문학 중에서 본고가 주목한 작품은 윤흥길의 분단소설이며,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분단문학의 개념과 전개를 예비적으로 고찰하였다. 분단문학이란 분단 시대 남한에서 창작된 분단 주체의 문학 작품을 가리키는 것으로, 분단 상황을 바라보는 올바른 역사적 인식을 밑바탕으로 한 문학 작품을 가리킨다. 또한 분단 문학은 분단된 한국의 현실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발전적인 통일관과 통일의 가능성을 전망시키는 작품이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소설 속에서 나타나는 주제와 기법의 분석을 통하여 분단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작품 속에서 ‘유년의 관찰자’로 제시되는 서술은 전쟁의 외상으로부터 벗어나 분단 문제에 대한 탈이념적인 인식과 전쟁의 비인간적인 폭력성을 연계시키면서 미학적 효과를 거두고 있었다. ‘성년의 경험자’는 재난의 충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수난자의 모습뿐만 아니라 생활인으로서 역사적 질곡을 감내하고 극복하려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회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상처와 비극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종의 ‘자기치유’이자 민족적 치유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으며, 비극의 기억과 재생은 이렇듯 민족적 치유의 일면으로 분단 극복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방법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작품 안에서 역설적인 표현과 무지한 화자의 서술 등으로 나타나는 아이러니 기법은 분단과 전쟁의 상황을 보다 비극적으로 제시하는 매개체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 작가는 이념에 의한 이데올로기를 국토와 민족을 양분시켰을 뿐만 아니라 동족상잔의 처참한 전쟁을 야기한, 민족 비극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작가는 작품 속에서 이데올로기로 인한 갈등은 얼마든지 해소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두 체제 사이의 진정한 화해를 끌어내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즉, 윤흥길 중단편 분단소설은 전쟁자체의 역사적 의미나 이데올로기적 대립의 비극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인간성을 상해하는 불화 세계로서의 전쟁의 폭력성과 참상, 고난에 더 주목하고, 전쟁이 주는 고통과 성장에 관한 개인적 의미와 더불어 분단을 극복, 화합으로 나아가게 하는 민족적 의미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문제제기 및 연구사 검토	1
2. 연구 목적 및 방법	7
II. 분단문학의 특성과 전개	12
1. 분단문학의 개념	12
2. 분단소설의 특성과 전개	15
III. 윤홍길 분단소설의 양상과 의미	44
1. 분단소설의 창작동인	45
2. 분단소설의 구조적 특성과 양상	52
1) 인물의 형상화	16
2) 사건의 갈등양상 21	
3. 아이러니의 양상	30
1) 상황의 아이러니	32
2) 말의 아이러니	36
3) 순진성의 아이러니	41
IV. 윤홍길 분단소설의 특징	73
1. 기억의 재생과 자기 치유	
2. 공동체 의식의 회복	
V. 결론	79

참고 문헌

ABSTRACT

I. 서 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사 검토

20세기를 거처온 현재 지구상의 거의 모든 나라는 통일된 근대 국민국가(nation-state)건설을 완성하고 주권국가의 경계를 넘어 세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광복 59주년을 맞이한 우리 민족은 21세기가 열린 지금까지도 분단 체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면서 서로 다른 생활권으로 나뉘어 반세기를 넘게 살아왔다. 이러한 가운데 남과 북은 지난 2000년 6월 첫 정상회담에서 적대적 의존 관계를 청산하고 '호혜적 상호 의존 관계'로 남북 관계의 패러다임을 바꾸기로 약속했다. 이는 실로 우리 민족을 화해와 통일로 이끌어 낼 역사적 사건이었다.

북한은 얼마 전부터 사회 문화 영역에서 변화와 교류를 꾸준히 시도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자본주의적 경제특구를 자체적으로 지정하는 등 서서히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남북관계는 더더욱 빠른 속도로 급진전될 것이고, 남북 관계에 대한 관심과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염원 또한 날로 높아질 것이 자명하다.

본고는 바로 이러한 '현실'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때문에 필연적으로 분단 현실을 다루고 있는 문학 작품에 주목한다. 식민치하의 현실에서 식민치하에 살고 있다는 철저한 의식이 없다면 거기서 벗어날 수 없듯이, 분단시대를

살면서 분단시대에 살고 있다는 의식이 철저하지 못하다면 결코 그 극복의 방향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문학 작품이 보여주는 분단의 인식과 극복 노력을 살펴보는 작업은 더욱 절실하다.

국민들 사이에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냉전의 해체 이후에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경제적인 환경이 통일에 유리한 방향으로 선회했지만, 통일 조국의 모습이 쉽게 손에 잡히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또한 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자본이 최우선되는 경제 제일주의적인 세계관이 급속히 확산됨으로써, 엄연히 분단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의식 전반에 걸쳐 분단과 한국전쟁에 대한 관심이 점차 퇴조하고 있는 경향 역시 부인할 수 없다. 구체적인 통일의 과정과 완성된 통일 한반도의 모습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고, 통일에 작용하는 역학 관계도 매우 복잡하기만 하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한국전쟁이 낳은 비극과 분단 구조의 모순을 밝히고 민족의 화해와 통일의 당위성을 형상화하기 위한 작가들의 노력은 매우 치열한 것이었다. 특히 문학이 구체적인 인간의 삶을 형상적 인식을 매개로 독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논리적 인식을 통해 얻을 수 없는 진리를 전달해 준다고 할 때, 통일의 과정에서 분단 모순의 실체를 밝히고 분단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인 이념을 탐구해 왔던 분단소설의 역할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통일은 곧 '민족공통체적 삶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남과 북이 공유할 수 있는 '민족공통체 의식'을 정립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된다. 1) 여기에 분단극복 의식을 소설 속에 형상화해 온 윤홍길 작품들의 성과를

1) 김인환은 「통일시대의 사회와 문화」(『한국현대문학50년』,한길사,1995)라는 글에서 남북한의 전쟁에 대한 기억이 상이함과 역사적 해석의 차이를 명기하면서 통일에 대한 성급한 환상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한다. 집단적 무의식 차원에서 서로를 증오하는 심리

되짚어 보는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이것은 구체적인 통일 과정에서 해결해야 하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에 대해 문학이 독자적으로 대응해온 발자취를 더듬어보는 일이기도 하다.

윤홍길과 관계된 평론은 크게 작가론과 작품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작가론적 입장의 평론들은 대부분 작가 윤홍길의 보편적이고 전체적인 특징을 크게 아우르는 것들이다. 2) 여기에는 윤홍길이 주로 고유어를 사용한다는 것, 묘사에 있어 매우 사실적이라는 것, 아이러니의 기법을 사용하는 것 등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작품들이 주제적인 측면으로 볼 때 크게 전쟁으로 인한 분단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와 모순된 사회 속에서의 개인적 갈등과 그 화해 방안을 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밖에 작가의 세계관을 문학사회학적으로 살펴 본 평론³⁾과 그의 작품이 갖는 문학 자체의 특성에 주목한 평론이 있다. 4)

적 원형을 남북한 사람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통일을 위해서는 집단적 무의식 차원에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심리적 원형을 생성해야 하는 지난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 2) 오생근, 「정직한 삶의 불투명성」, 『문학과 지성』, 1976. 겨울.
김병익, 「불화의 세계와 그 인식」, 『문학과 지성』, 1977. 겨울.
김 현, 「생활과 신비」, 『문학과 유토피아-공감의 비평』, 문학과 지성사, 1984.
김치수, 「운명과 극복-윤홍길 작품세계」, 『문학과 비평의 구조』, 문학과 지성사, 1984.
권오룡, 「진실과 해학」, 『존재의 변명』, 문학과 지성, 1989.
홍정선, 「깨어있는 자의 시선과 세계」, 『우리시대 우리작가 10』, 동아출판사, 1987.
성민엽, 「소시민적 갈등의 진정성」, 『꿈꾸는 자의 나성』, 문학과 지성사, 1987.
김교선, 「윤홍길의 문학세계」, 『현대문학』 1982.4.
한용환, 「오만학 어조와 준엄한 문학」, 『동서문학』, 1988.11.
천이두, 「묘사와 실험」, 『장마』, 민음사, 1996.
- 3) 이러한 문학사회학적 입장에서 쓰여진 평론들은 윤홍길의 작품이 세 가지 정도의 경향으로 명확히 나뉘는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대부분의 모든 작품에서 작가의 주제의식 전개와 그 흐름을 읽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평론에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윤홍길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던 1970~80년대 그에 대한 작품론은 크게 두 가지 경향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분단 소설과 관련된 평론이고, 나머지 하나는 70년대 개인과 사회적 갈등 양상과 모순된 현실을 다룬 리얼리즘 소설과 관련된 평론이다. 전자의 것은 주로 「장마」를 필두로 한 성장소설을 평한 글로서, 한국 전쟁과 분단 현실, 그로 인한 상처와 극복, 치유에 관한 것들⁵⁾이고, 후자는 주로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연작을 평한 글이다. ⁶⁾ 1980년대부터 90년대 초에 장편소설을 대상으로 한 평론에는 사회 속에 내재되어 있는 권력 관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형식적 기법인 풍자와 해학에 주목한 것, 그리고 한국 사회에 지배적으로 작용하는 삶의 정서에 주목한 글이 있다. ⁷⁾

이보영, 「난세의 삶과 암묵적 초점-윤홍길론」, 『현대문학』, 1981.8.

천이두, 「화해지향성의 문학」, 『한국소설문학대계 윤홍길』, 동아출판사, 1995.

김치수, 「사건과 관계」, 『문학 사회학을 위하여』, 문학과 지성사, 1986.

4) 김진석, 「무제에서 무제로 떠나가다」, 『작가세계』, 1993. 여름.

5) 홍성원, 「한국전쟁에 대한 새로운 조명」, 『문학과 지성』, 1973. 여름.

홍기삼, 「이데올로기의 민족적 해체」, 『창작과 비평』, 1979. 가을.

권영민, 「두 권의 소설집이 갖는 의미」, 『세계의 문학』, 1980. 가을.

이동열, 「삭막한 삶의 형상화」, 『문학과 지성』, 1979. 여름.

천이두, 「비극의 근원적 탐색」, 『문학과 시대』, 문학과 지성사, 1982.

김영화, 「장마와 무지개」, 『월간문학』, 1987.6.

정명교, 「가족, 개인, 도구」, 『세계의 문학』, 1979. 여름.

김상태,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자세-윤홍길의 작품 세계」, 『정통한국문학대계 47』, 어문학, 1986.

김치수, 「역사적 상처와 현실적 고통-윤홍길의 세 작품」, 『공감의 비평을 위하여』, 문학과 지성사, 1991.

6) 신동욱, 「진실한 삶의 길을 비추는 이야기의 힘」, 『세계의 문학』, 1977. 봄.

오생근, 「개인과 사회의 역학」,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문학과 지성사, 1977.

김용구, 「소설의 끝남과 독자의 몫」, 『세계의 문학』, 1987. 가을.

김치수, 「소설에 대한 두 질문-이청준, 윤홍길」, 『문학사회학을 위하여』, 문학과 지성사, 1986.

윤홍길의 작품 연구를 크게 세 계열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 현대문학사 속에 통시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전후 문학과 분단문학의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진 연구물이다.⁸⁾ 이 논문들은 주로 윤홍길의 분단 소설이 그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1970년대의 분단 소설들, 즉 유년기 때 전쟁 체험을 한 작가군에 포함시켜 이들의 특징과 함께 '유년기 체험의 문학적 형상화'라는 주제로 묶고 있다. 여기서 다루고 있는 윤홍길의 작품은 「장마」, 「황혼의 집」 정도에 그치고 있다.

둘째, 성장 소설을 연구한 논문들에 윤홍길의 작품이 일부 다루어지고 있다.

9) 이 경우 추돌란의 논문¹⁰⁾을 제외한 모든 논문들이 「장마」를 분석하고 있는

7) 김병익, 「사랑과 각성」, 『세계의 문학』, 1979. 여름.

구모룡, 「권력의 생태학」, 『작가세계』, 1993, 여름.

친승걸, 「개인과 집단 그 갈등의 현장」, 『문학과 지성』, 1978, 겨울.

이동하, 「해학과 비판-윤홍길 「완장」」, 『현대문학』, 1983, 3.

한 기, 「개방의 문학, 정체의 문학」, 『문학과 사회』, 1995. 겨울.

8) 심정민, 「분단소설의 변모 양상 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1994.

김갑수, 「신구세대의 6·25 소설 비교」, 동국대 석사논문, 1984.

유임하, 「현대 한국소설의 분단인식 연구」, 동국대 박사논문, 1997.

유지형, 「분단 소설 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1999.

권성임, 「분단 소설 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2000.

홍인철, 「한국현대소설의 이데올로기 수용 양상 연구」, 한국외대 석사논문, 2000.

한민수, 「1970년대 분단소설 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2001.

9) 추돌란, 「전쟁 체험의 이니시에이션 소설 연구」, 건국대 석사논문, 1995.

남미영, 「한국 현대 성장 소설 연구」, 숙명여대 박사논문, 1991.

유순자, 「6·25 전쟁과 이니시에이션 소설 연구」, 강원대 석사논문, 1997.

최선호, 「전후 성장소설의 유년 주인공과 서술시점 연구」, 한남대 석사논문, 1995.

오명숙, 「전쟁을 배경으로 한 이니시에이션 소설 연구」, 인하대 석사논문, 1993.

10) 추돌란은 위의 논문에서 「기억 속의 들꽃」을 칠부지 소년이었던 '나'가 전쟁의 잔상과 이해득실을 따지는 어른들의 간악함에 상처 입는 반면 자연스럽게 이성에 눈떠가고 선과 악의 명확한 판단을 내릴 만큼 성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결정적 이니시에

데, 이들은 「장마」의 어린 소년 '동만'의 성장기를 살펴봄으로써 이니시에이션 (initiation)적 특성을 구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셋째, 1990년대 후반부터 나오기 시작하여, 본격적으로 윤흥길을 다룬 논문이 있다. 이들 논문은 크게 기법적인 측면에 주목한 것,¹¹⁾ 서사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접근한 것,¹²⁾ 주제와 기법과의 연관성에 주목한 것들로 나뉜다.¹³⁾ 그리고 이외에 비교문학적으로 접근한 것과,¹⁴⁾ 비판적 리얼리즘의 양상에 집중한 논문이 있다.¹⁵⁾

선행 연구 검토에서도 드러나듯이 윤흥길 분단소설은 통시적인 관점을 안고 있는 한국 분단소설 연구 속에서 단편적으로 그 특징을 나타내 보이거나, 성장소설의 연구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더욱 문제되는 것은 동일한 작품 결말에 대해서 상이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연구들인데 이는 한국전쟁이 내포하는 이데올로기적인 대립해소 혹은 대결을 해결하는 작품의 귀결 방식 부분에 대한 견해차에서 비롯된 것이다. 작품의 시말(始末)을 관통하여 내적인 서사구조의 유기성 아래서 탐색해야 하는 작품의 지향점을, 오로지 작품의 귀결방식을 통해서만 가치 평가

이선 소설이라고 보았다.

11) 박현덕, 「윤흥길 소설의 아이러니 연구-1970년대 중·단편을 대상으로」, 동덕여대 석사논문, 2000.

김수연, 「윤흥길 소설의 아이러니 연구」, 성신여대 석사논문, 2002.

12) 김지연, 「윤흥길의 초기 성장소설 연구」, 충북대 석사논문, 1999.

박규현, 「尹興吉 小說 研究」, 명지대 석사논문, 1998.

황일봉, 「윤흥길 소설의 '악의 상징' 연구」, 부산대 석사논문, 2002.

13) 김송은, 「윤흥길 소설 연구-시점과 서사적 거리를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논문, 2000.

김수진, 「윤흥길 소설의 주제와 기법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2000.

14) 유성균, 「Hemingway의 A Farewell to Arms와 윤흥길의 「장마」에 대한 비교 연구」, 국민대 석사논문, 1995.

15) 추진호, 「윤흥길 소설 연구-1970년대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2001.

적으로 규명하는 이러한 작업은 윤흥길 문학의 본류에서 동떨어진 과편적 평가 일 뿐이다.

또한 작품 속에 드러나는 화해의 귀결이 작중 인물의 내적 성숙을 위한 방법적 도구라 보면서도 개인의 의식을 매개로 하는 비극의 극복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관념적 해소일 뿐이라는 논의¹⁶⁾와 “소설이란 현상과 본질의 합일에 바탕을 둔 서사시가 아니라 그것의 어긋남을 보여주는 장르이므로 화해를 전제로 한 「장마」는 근대적 소설형식의 미달 현상이거나 서사시로의 후퇴 현상이다.”¹⁷⁾라는 평가는 연구자의 과도한 주관적 선별 기준이 작용한 견해로 볼 수 있다.

이에 본고는 이러한 연구 속에서도 단독으로 연구되어진 바 없는, 윤흥길 분단 소설의 양상과 특성을 통해 드러나는 분단의 극복 양상에 집중할 것이다. 이는 각 작품에 대한 분리된 연구 경향을 포괄하는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론으로서 분단문학이라는 큰 맥락 속에서의 윤흥길 작품에 나타나는 분단인식의 특징을 살피는 유의미한 작업이 될 것이다.

2. 연구 목적 및 방법

한국 문학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현재까지 꾸준히 다루어져 온 소재는 ‘한국 전쟁과 분단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한반도 내의 분단 상황으로 인한 민족적·개인적 현 문제와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담은 분단문학의 역사적 전개는 앞으로도 한국 문학사에서 지속적이고 확장적인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현재

16) 성민엽, 「관념론의 유희과 큰 극복」, 『언어의 세계 2』, 청하, 1983.

17) 김윤식, 「6·25와 우리 소설의 내적 형식」, 『김윤식 선집2』, 서울출판사, 1996.

김윤식·정호웅, 「분단·이산소설의 전개」, 『한국소설사』, 문학동네, 2000.

한반도 내의 남북 관계를 고려할 때 분단문학에 대한 관심과 초점은 새로운 국면을 가지고 전개될 가능성을 충분히 지니고 있어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한국의 분단문학 중에서 본고가 주목한 작품은 윤홍길의 분단소설이며, 그 중에서도 1970년대 중단편 분단소설이다. 그는 1968년 등단 이래 최근까지 우리의 분단현실과 산업사회 현실에 대해 독특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작품 활동을 해왔다. 「황혼의 집」, 「장마」, 「무제」를 위시한 다수의 분단소설들은 「아홉 켠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와 그 연작들로 대표되는 소외 계층에 대한 관심과 산업사회 현실을 형상화한 소설들과 함께 윤홍길 작품 전체의 커다란 축을 형성하고 있다. 이 중에서 분단소설의 경우, 초기 유년기 인물 시점의 중·단편 소설, 인물 관찰자적 시점의 중·단편 소설, 비교적 최근에 발표된 장편 소설로 이어지는 전개 양상을 보인다.

본 논문의 연구는 이와 같은 기존의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수용하여 좀더 심화 확장하고 그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대상은 1970년대 집중되고 있는 초기의 유년기 인물 시점의 중·단편 소설군, 그 뒤를 잇는 인물 관찰자적 시점의 중·단편 소설이다. 다시 말해 본고는 '윤홍길의 중·단편 분단 소설'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이럴 경우 윤홍길 소설이 갖는 소재적 특징 때문에 분단소설로서의 포함 여부에 얼마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으며, 「완장」이나 「꿈꾸는 자의 나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하지만 작품 속 인물의 상황과 인물이 거처온 시대적 배경이 '한국전쟁과 분단 한국의 현재적 상황'을 내보이는 요소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분단 소설의 개념에 부응하는 주제 의식이 면밀히 드러나지 않거나, 이러한 요소가 작품을 이

끝어 가는 작가의 주된 또 다른 줄기에 부속되는 경우에는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고의 논의 전개는 다음과 같다. 먼저 II장에서는 예비적 고찰로서 분단문학의 개념과 분단소설의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이는 분단문학의 개념을 필두로 1970년대 들어 변화된 분단인식의 변모와 함께 분단인식이 투영된 소설의 경향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될 것이다. III장에서는 윤홍길 분단 소설 속에서 나타나는 서사적 특징과 그 기법적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IV장에서는- III장에서 도출한 분단인식의 특징들이 각각의 작품 속에서 어떠한 형식으로 극복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필 것이다. 분단극복의 양상은 현실인식을 기초로 한 주인공의 대응자세 내지 주제의식의 표출양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본 항은 논란이 되고 있는 윤홍길 작품의 결말이 갖는 '화해의 성격'도 아울러 규명하고자 한다. 결론인 V장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윤홍길 소설의 분단인식과 극복양상을 요약한 후, 이를 토대로 그의 분단소설의 가치와 의의 등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는 대체로 분단인식의 특징, 서사적 특성, 분단극복의 측면에서 윤홍길이 성취한 분단소설적 업적과 의의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 그 방법상 그의 작품에 대한 종합적 가치평가를 중심으로 소설사적 의의를 재단하는 형식이 될 것이다.

II. 분단문학의 특성과 전개

1. 분단문학의 개념

분단과 한국 전쟁은 광복 이후의 한국 현대소설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다. 이는 민족과 개인에게 주어진 재난적·환경적 배경이 되어 전후 한국 현대소설의 전개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18) 때문에 ‘한국전쟁과 분단 문제’를 다룬 소설은 한국 문학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채 현재까지 꾸준히 씌어지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 내의 분단 상황으로 인해 야기된 현재의 민족적·개인적 문제와 이에 대한 극복 의지를 형상화한 분단 문학의 역사적 전개는 통일 한국의 그날까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이미 이러한 소재와 주제를 다룬 작품들은 양과 질적인 면에서 어떤 경향의 소설보다 압도적이다.

분단 문학은 분단 상황이라는 당대성의 문제와 연관되는 것이지만 우리 현대 문학사의 총체적인 의미구조에서 볼 때, 하나의 시대적 단위 개념으로 인식될 수 있다. 하지만 분단문학이 분단시대라는 시대적 단위 개념 속에 자리잡고 있다고 하여 단순히 시대적 개념만으로 한정해선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분단문학은 분단 상황에 대응하는 역사 인식의 논리, 삶의 태도 및 방향 등을 예술적으로 형상화해야 한다는 가치 개념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전쟁과 분단 상황, 그로 인한 제 문제를 다룬 작품들은 그 시대의 유행 혹은 연구 경향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띤다. 그리고 이러한 작품을 부르는 명칭

18) 박진우, 「1980년대 분단소설 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2001.p67.

또한 매우 다양하다.

첫째, 전쟁문학이라는 개념이 있다. 오현봉은 전쟁 문학의 공간을 전장에서부터 한 인간의 내면 세계까지로 삼고, 시간대를 전시에서부터 종전 직전까지로 취하여, 선전 혹은 대항 선전을 작품 창작의 주동기로 삼는 문학양식이 전쟁 문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쟁문학이 지향하는 입장을 전쟁을 찬성하는 입장과 전쟁을 비판하고 고발하는 입장으로 요약하고 있다.¹⁹⁾ 그러므로 전쟁문학이라는 개념은 매우 한정적인 의미를 가진 용어로 판단된다. 한반도의 현재 상황이 엄격히 말해 휴전인 상태에 있기는 하나, 전쟁문학이라는 용어는 해방 공간의 분단 모순이나 6·25 이후의 분단으로 인한 당대의 제 문제들을 다룬 모든 작품들을 포함하여 담아낼 수 없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둘째, 전후소설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전후문학 또는 전후파 문학이라는 개념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전후문학 혹은 전후파 문학은 아프레게르²⁰⁾의 경향이나 사조를 띤 문학을 일컫는다. 전후소설은 전쟁 소설과 함께 6·25와 관련된 소설 연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개념이지만, ‘전후파’라는 개념이 제 1차 세계 대전 후,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어떠한 문예 사조와 그 명칭을 같이 한다는 데에 문제가 발생된다. 즉 6·25 한국 전쟁 이후 현실에 대한 작가의 인식 태도와 세계 문예사조적인 영향 아래 배태된 소위 전후 소설론은 1950년대 한국 소설을 세대론적 관점인 신세대론과 함께 전후 프랑스 문학에서 비롯된 실존주의의 관점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개념인 것이

19) 오현봉, 「한국전쟁문학의 연구」, 『한국현대문학의 사회학적 시고』, 형설출판사, 1990. pp233-234.

20) 아프레게르(apres-guerre)란 제 2차 세계 대전 후 전전(戰前)의 사상·도덕·관습에 구속됨이 없이 행동하는 경향. 또는 그러한 사람을 말한다.

다. 21) 이렇듯 “전후문학”이라는 개념은 서구에서 세계 대전 이후를 뜻하기 때문에 개념상 혼란이 생길 수 있다. 더 엄밀히 말하면 제 1차 대전 이후의 문학과 전후문학이기 때문에 이 용어는 한국의 특수한 분단 상황만을 가리키는 용어로는 적당하지 않다. 그리고 한국 문학에만 국한시켜 보더라도 전쟁 후 언제까지를 지칭하는가 규정하지 못하는 개념이다.

셋째, 이산문학이라는 용어가 있다. 이산문학이란 민족사적 불행인 이산 가족의 비극을 형상화한 작품이며 분단이나 6·25 전쟁 등에 의한 가족의 비극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그러나 “이산의 문제는 분단의 문제를 떠나서도 성립”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산문학이라는 용어를 분단과 6·25에 국한시키는 것은 전적으로 타당할 수 없다.

넷째, 6·25 문학이라는 용어가 있다. 6·25 문학은 잠정적으로 6·25에 대한 올바른 역사적 인식을 가지지 못하고, 그 내면적 문제와 6·25 라는 사건의 차이를 변별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용어이다. 또한 6·25가 분단의 원인이자 결과라고 해석하게 되는 오류에 빠지게 한다. 때문에 6·25문학은 소재주의에 의한 분단문학의 여러 갈래 중 하나로 파악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모든 개념들은 대개 한정적인 개념들이다. 임현영은 이러한 한정된 개념들을 극복하기 위해 “분단문학”이라는 개념에 접근하는 방법을 다양화시키고 있다.²²⁾ 그는 분단문학을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나누어 접근한다. 그는 넓은 의미의 분단문학을 “분단 시대의 모든 문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넓은 의미가 가지는 단순 시대적 구분법을 극복하기 위해 좁은 의미로 “분단으로 빚어진 민족의 모든 갈등과 모순을 파헤치면서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민중

21) 심정민, 「분단소설의 변모 양상 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1994.p5.

22) 임현영, 『분단시대의 문학』,태학사, 1992. pp221-223.

들의 삶과 사상과 정서를 담은 작품이나 그와 관련된 모든 문학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올바른 분단문학이 되기 위한 구성요건으로 ‘투철한 민족적 입장의 견지’, ‘독재 권력의 극복’, ‘이념적 유연성’, ‘올바른 역사인식’을 들고 있다. 때문에 분단문학에 대한 접근은 분단 상황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인식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분단문학은 분단 상황에 대한 인식의 방법과 시각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분단 논리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분단 논리가 지배하는 상황에 안주²³⁾할 경우, 분단 문학은 분단 논리의 범주 안에서만 허용될 수 있는 문학으로 성격이 규정될 위험이 있다. 그러나 분단 상황의 문제성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분단 극복의 의지에 새로운 전망을 요구하게 될 경우, 분단문학은 분단 모순의 문학적 비판 형식으로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2. 분단소설의 특성과 전개

1970년대 한국사회는 한 마디로 말해 산업화시대와 유신독재시대로 특징지어진다. 1970년대 사회 현실은 경제개발로 인하여 고속성장과 도시화,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또한 전통적인 사회구조가 서구적으로 바뀌고, 의식의 변화도 급물살을 타 대중문화가 확산되고 물질주의 가치관이 확대되었다. 또 한편으로는 군사정권과 유신독재로 인한 “암흑과 공포의 정치”는 1970년대 한국인의 삶의 기

23) 권영민은 이러한 분단문학의 형태를 ‘이데올로기부터의 도피형 문학’이라고 말한다. (권영민, 『분단문학의 역사적 전개』, 『소설과 운명의 언어』, 현대소설사, 1992. p332.

조, 의식의 방향, 정신사적 추이 등을 근본적으로 통제하고 조절하였다”²⁴⁾

이러한 한국사회의 변모양상은 경제개발에 의한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외국자본과 기술에의 의존을 피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경제적 토대의 취약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더구나 산업화의 강력한 추진과 총력안보를 빌미삼아 유신체제라는 독재체제가 지속되고, 통치권력의 강화가 정치사회적 통제로 확대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낳게 된다.”²⁵⁾ 도시노동계층의 성장에 의한 계층간의 갈등, 도농간의 격차에 따른 갈등, 공해문제, 급격한 전통 가치관의 와해 등이 현실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신독재의 권부에서는 강력한 통제로 일관함으로써 비판적 지식인들의 격렬한 저항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1970년대의 당대적 현실 문제가 소설의 양식을 통해 폭넓게 접근되었는데, 그 중 1970년대 소설이 보여주고 있는 특징적인 경향의 하나는 민족의 분단과 한국전쟁의 비극적인 체험을 소설로 재현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분단현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많은 작품이 발표된 경우이다. 최인훈, 박경리, 이호철을 비롯한 여러 중견작가들에 의해 분단현실을 그린 작품이 이어졌고, 윤홍길, 김원일, 전상국, 황석영, 이문구, 현기영, 한승원, 조정래, 문순태, 홍성원 등 신인 작가들 또한 분단을 소재로 한 작품을 본격적으로 발표했다.

이렇게 1970년대 분단소설이 번성하게 된 이유를 강진호²⁶⁾는 첫째,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의 발표를 계기로 분단현실에 대한 관심의 증폭, 둘째, 당시 본격적으로 발굴·채록된 증언과 수기 등의 영향, 셋째, 70년대 들어서 소년시절에

24) 조남현, 『해방 50년 한국소설』, 유종호 외, 『한국 현대문학 50년』, 민음사, 1995, p150.

25) 권영민, 『한국 현대문학사』, 민음사, 1993. p245.

26) 강진호, 『1970년대 문학 연구』, 소명출판사, 2000. pp45-46 요약.

전쟁을 체험한 세대들이 작품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점, 넷째, 현대사와 관련된 사회과학계 연구성과의 수용 등을 들고 있는데,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1970년대 들어서 유소년 전쟁 체험세대들이 본격적으로 작품활동을 시작한 데서 기인했을 것이다.

이들은 전쟁으로 인한 비극과 상처입은 존재들의 모습을 주로 회상의 시점과 증언의 포즈를 통해 구체적으로 그려냈고, “분단의 제 상황을 간접화 시키거나 역사적 조망하에 놓는”²⁷⁾ 방식으로 작품 활동을 전개하였다. 흔히 2세대로 불리는 유년기 전쟁 체험세대는 “자기들이 그 시절에 지녔던 순진한 아이의 눈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일정한 객관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 비극의 실상을 조명하는 여유를 획득하였고, 일부 작가는 분단과 6.25의 의미를 총체적으로 파악한다는 거창한 과제에 도전하여 상당한 성과를 이룩한다.²⁸⁾ 또한 이 시기 작가들은 이제 과거사를 조망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재화하고 치유의 가능성을 찾는 보다 적극적인 모색을 보여준다. 이 시기 소설의 상당수가 회상기법을 도입한 것도 사실은 6.25와 관련된 과거사를 객관화하고 그와 더불어 성장기에 체험한 고통의 상처를 어떤 형태로든 정리하고 치료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1970년대 작품의 특징은 첫째, 분단의 제 상황을 간접화시키거나 역사적 조망 하에 놓고 있다는 점에서 전 시대와 구별되고, 둘째, 유년기 직접 체험을 바탕으로 회상기법을 도입하여 6·25의 참모습을 알리려 하기도 했으며, 셋째, 6·25의 의미를 단순한 과거가 아닌 비극적 현대화로 인식하는

27) 최유찬, 「대립적 세계와 화해의 조건」, 『리얼리즘의 이론과 실제 배경』 두리, 1992, p211.

28) 이동하, 「분단소설의 세 단계」, 『분단문학비평』, 청하출판사, 1987, p295 요약, 분단과 6.25의 의미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려는 소설로는 홍성원의 『남과 북』이 있다.

경향이 있다고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1970년대 분단소설 작가들은 객관적인 시간적 간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동란 직후의 피해의식에서 60년대의 내면화 과정을 거쳐 70년대 중반에 자기화로 그 점진적인 진화를 이루고 있다.²⁹⁾ 이는 분단현실의 자기화와 주체적인 인식의 심화로서, 현실을 주체적 시각으로 수용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모색한 70년대 소설의 분단극복 의지가 전 시기에 비해 한 걸음 더 나아갔음을 말해 준다.

29) 김병익, 「분단의식의 문학적 전개」, 『문학과 지성』, 1979. 봄.

Ⅲ. 윤흥길 분단소설의 양상과 의미

1. 분단소설의 창작동인

윤흥길 분단소설의 소설적 모색을 위해서는 작품이 갖고 있는 현재적 의의를 살피는 일과 함께, 작가가 생각하는 이데올로기의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윤흥길은 1942년 12월 14일 전북 정주시(井州市)에서 은행원인 아버지 윤승오(尹相五)씨와 어머니 조옥성(趙玉成)씨 사이에 순위 누이 하나를 둔 6남매 중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이후 아버지의 잦은 전직과 실직으로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다. 그가 6·25를 겪었던 때는 1947년 아버지의 새로운 직장을 따라 이리시(裡里市)로 이사한 후 국민학교 2학년 때이다. 아이로서 겪었던 전쟁에 대한 인상이 깊어 각인되어 이후 많은 작품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전쟁에 대한 그의 의식은 「작가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 아직은 6·25를 잔해의 형태로 역사 속에 편입시킬 때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다. 그것은 이미 징 치고 막 내린 과거의 전쟁이 아니다. 체험세대 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인 미체험 세대까지도 여전히 전쟁의 후유증 속에서 살고 있다. 한국인치고 어느 누구도 그것 앞에서 마냥 자유로울 수가 없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내 문제는 물론이고 국제 관계를 포함한 모든 면에서 그것은 오늘날까지도 알게 모르게 우리의 운명을 간간히 간섭하고 사고와 행동을 낱낱이 제약하고 민족적 자금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 앞으로도 간단없이 그럴 것이다. 40여 년 전의 일이라 해서 결코 케케묵은 이야기로 치부해버릴 것이 아니다.³⁰⁾

30) 윤흥길, 「작가의 말」, 『낫』, 문학동네, 1995.

윤홍길은 1968년 참담했던 공군 시절의 체험담인 「회색 면류관의 계절」이라는 작품으로 신춘문예를 통하여 등단하게 되고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작가 활동이 왕성해진다. 이후 1970년에 발표한 「황혼의 집」을 발표한 것을 기점으로 하여 「장마」, 「제식훈련 변천 역사」,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등 뛰어난 단·중편들을 연이어 발표함으로써 확고한 작가로서의 위치를 굳힌다. 한편 1970년대 후반부터는 점차 장편작가로서의 영역을 확대하여 「묵시의 바다」, 「純銀의 녀」, 「완장」, 「에미」, 「뽕아도 아리랑」, 「낮」 등 술한 작품들을 창작해 오고 있다.

그는 한국전쟁을 체험한 시기에 사랑하는 두 사람을 잃는 불행을 겪는다. 한 사람은 전쟁 직전 홍역을 앓다 죽은 동생 경묵이고, 다른 한 사람은 윤홍길의 어린시절, 그의 우상이었던 외삼촌이다. 그는 국군 소대장으로 일선 전투에서 전사한다. 그리고 작가의 막내 이모 또한 남편이 인민군의 서울 점령 시 행방불명되는 불행을 겪는다. 이밖에도 그는 어린 시절 전라도 지방에서 있었던 좌익과 우익의 충돌 등 전쟁과 이데올로기의 문제와 연관된 많은 사건들을 겪는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작가에게 분단 및 전쟁의 문제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갖게 했을 것이다.

작가의 성장 체험은 자전적 소설인 「궁상반생」 속에 자세히 나타나는데 이러한 성장과 전쟁에 대한 체험과 충격들은 그의 초기 분단소설 속에서 유년기 화자의 목소리로 나타나고 있다. 그가 「궁상반생」³¹⁾에서 “헤밍웨이의 충고에 따라 나는 내가 겪었던 체험들을 하나하나 소설이라는 틀 속에 우겨 넣기 시작했다”라고 한 것처럼, 작가의 실제 체험으로 여겨지는 이야기와 소재들을 작품

31) 윤홍길, 「궁상반생」, 『무지개는 언제 뜨는가』, 창작과 비평사, 1979.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장마」가 수록된 작품집 후기의 다음과 같은 진술은 이데올로기에 대한 작가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다.

내가 쓰는 일련의 그 분단 소설이 우리의 저주스런 분단의 벽을 까뭇개는데 탱크나 불도저와도 같은 어떤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리라고는 애당초 기대하지 않는다. 한 사람의 작가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다만 외국에서 반입된 이데올로기에 묻어 들어온 총포의 그늘 속에 가리워진 인간적인 진실을 밝혀내고,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 정서를 통하여 부단히 동질성을 확인해 나감으로써 우리가 애초에 꿈에도 원한바 없었던, 박래품(舶來品)이데올로기의 결과로 날로 심화되어만 가는 남과 북의 이질화 현상을 극복하는 작업에 나름대로 안간힘을 다할 따름이다.³²⁾

위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작가는 ‘舶來的 이데올로기’에 의해 분단이 이루어졌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 이데올로기는 국토와 민족을 양분시켰을 뿐만 아니라 동족상잔의 처참한 전쟁을 야기한 민족 비극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작가는 이데올로기로 인한 갈등은 얼마든지 해소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두 체제 사이의 진정한 화해를 끌어내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그는 정치나 경제의 영역보다도 민족 공통의 정서를 회복함으로써 분단극복이 가능하고 또 그것이 바로 분단극복의 지름길임을 간파한 것이다.

2. 분단소설의 구조적 특성과 양상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전쟁과 이데올로기의 문제와 연관된 많은 사건들을 겪은 윤흥길은 분단 및 전쟁의 문제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다면

32) 윤흥길, 「작가의 말」, 『장마』, 민음사, 1980.

작가는 작품에서 전쟁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아마도 이 점을 밝히면 윤홍길 소설이 갖는 의미가 보다 분명해질 것이다. 소설의 구조³³⁾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소설의 구성요소³⁴⁾들은 서로 긴밀하게 얽혀 있으며, 그러한 내적 짜임새가 주제 또는 의미를 낳는 것이다. 그러므로 윤홍길 소설의 본질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소설 내용뿐만 아니라 기법이나 형식에 대한 논의도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먼저 2장에서는 ‘인물의 형상화’와 ‘사건 갈등 양상’을 중심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1) 인물의 형상화

소설의 인물이란 ‘실제 인간의 허구적 재현’³⁵⁾이다. 소설의 인물은 어느 정도는 실재하는 인간의 재현 내지 모방인 동시에, 다양한 언어적 수단들로 구성되는 가공의 존재라는 이중적 특성을 갖는다. 채트먼은 인물이 여러 가지 특성들로 이루어진 계합체(契合體)이므로, 일단 텍스트를 중심으로 인물의 성격을 구성하는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³⁶⁾ 특성은 습관이나 느낌, 기분, 생각과

33) ‘구조’에 대한 견해는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것만을 구조로 보는 견해와 내용적인 것까지 모두 구조로 보는 두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김천혜, 『소설 구조의 이론』, 문학과 지성사, 1990.

34) 김천혜는 소설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10가지의 항목으로 분석하고 있다. ①외형, ②시간, ③화자, ④시점, ⑤문장, ⑥서사 구조, ⑦작중 인물, ⑧커뮤니케이션, ⑨현실, ⑩동일시와 이화. 김천혜, 앞의 책

35) S.리몬·케넌, 최상규 역, 『소설의 시학』, 문학과 지성사, 1985, p53.

36) 시모어 채트먼, 김경수 역, 『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 민음사, 1990.

예컨대 어떤 인물이 자꾸만 손을 씻고 깨끗한 마루를 또 닦고, 가구의 먼지를 털어내고 한다면 독자는 그에 대해서 ‘강박적 결벽증’이라는 특성을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같은 일시적인 심리적 현상들과 행위에 비해서 비교적 안정되고 지속성이 있다. 따라서 지속적 특성은 여러 번 반복되어 나타나야만 하고, 그럼으로써 성격적 특성으로 일반화될 수 있다. 여기서는 소설 속에 등장하는 특정 인물의 습성이나 말씨, 행동, 세계관 등의 국면들로부터 하나의 공통분모를 추출하고 성격을 구성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원리들을 전제로 작품 속에 존재하는 인물 유형을 크게 '유년기의 관찰자'와 '성년기의 경험자'로 나누어 보았다.

(1) 유년의 관찰자

윤홍길 분단소설에서는 유소년의등장이 돋보인다. 이는 폭력적인 전쟁의 발아래 놓인 어린 인물들의 수난상을 보여줌으로써 비극적인 상황을 보다 확대시켜 보여 주려는 작가의 의도에서 비롯된다. 전쟁의 폭력이나 광기와는 전혀 무관한 어린 인물들을 가혹한 현실의 구도 안에 배치시킴으로써 그 폭력성은 배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장마」의 서술자 〈나〉, 「황혼의 집」의 서술자 〈나〉와 중심인물 〈경주〉, 「양」의 서술자 〈나〉와 중심인물 〈윤봉이〉, 「기억 속의 들꽃」의 서술자 〈나〉와 중심인물 〈명선이〉, 「무지개는 언제 뜨는가」의 서술자 〈나〉 등 거의 대부분의 윤홍길 분단소설에서는 유소년기 인물이 등장하고 있다.

“말은 안 했어도 너를 친자식 진배없이 생각해 왔다. 너 같은 어린 것이 그런 물건 갖고 있으면은 덜 좋은 법이다. 이 아저씨가 잘 맡아놨다가 후제 크면 줄테니깐 어따 숨겼는지 바른대로 대거라.”

아무리 달래고 타일러도 소용이 없자 아버지는 마침내 화를 버럭 내면서 명선이의 몸뚱이를 뒤지려 했다. 아버지의 손이 옷에 닿기 전에 명선이는 미꾸라지같이 안방을 빠져나가 자취를 감추어버렸다. 그리고 그 날 밤 끝내 우

리 집에 돌아와지 않았다.

“틀림없다. 몇 개나 되는지는 몰라도 더 있을 게다. 어디다 감췄는지 니가 살살 알아봐라. 혼자서 어딜 가거든 눈치 안 채게 따러가 봐라.”

입맛을 찻찻 다시던 아버지는 나한테 이렇게 분부했다. 37)

- 「기억 속의 들꽃」

낮더위가 한풀 꺾이고 어둠밭이 커켜이 내려앉을 무렵에야 명선이는 당산 숲속에서 발견되었다. 우리가 그 애를 찾아낸 것이 아니라 그 애가 돼지 먹따는 소리로 한바탕 비명을 질러 사람들을 불러모은 결과였다. 이 나무 저 나무 훑아다니는 매미처럼 당산 숲 속을 팔모로 헤집고 다니며 거뜰거뜰 내지르는 비명 소리를 듣고서 맨 처음 달려간 사람들 축에 아버지도 끼어 있었다.

“너그 놈들이 누구누군지 내 다 안다야! 어디 사는 누군지 내다 봐줬으니께 날만 썰다하면 물고를 낼 것이다야.”

해뜰해뜰 뒷모습을 보이며 당산 골짜기 어둠 속으로 쫓지가 빠지게 달아나는 남자들을 향해 아버지는 길길이 뛰며 입에 거품을 물었다.

“아가, 이자 아모 얽려 없다. 어서 내려오니라, 어서.”38)

- 「기억 속의 들꽃」

난리통에 혈혈단신이 된 서울 아이 명선이가 금반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졌다. 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누나와 나는 돌아오지 않는 명선이를 찾아 마을 안팎을 찾아 다니지만 못 찾고 결국 명선이는 금반지에 욕심이 난 동네 남자들에게 봉변을 당할 뻔하게 된다. 전쟁의 폭력이나 광기와는 전혀 무관한 어린 인물 명선이를 통해서 가혹한 전쟁 현실 속에 만연한 세계악의 폭력성을 고발하고 있다. 또한 「무지개는 언제 뜨는가」의 서술자 나를 비롯한 아이들은 이러한 세계악의 폭력성을 훑내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37) 윤흥길, 앞의 책,p 24.

38) 윤흥길, 앞의 책,p 32.

조무래기들이 까맣게 물려들어 미친년을 겹겹으로 에워쌌다. 눈자위를 허영게 뒤집어 까고 길길이 뛰는 한바탕의 발광 끝에 미친년은 다 허물어져가는 동구 밖 외딴집 토담을 등지고 추욱 늘어져서 앉아 있었다. 풀어헤친 무명적삼 새로 꼭 찌르면 평 소리를 내면서 터질 것만 같은 젖둔덕이 하얗게 드러나 있었다. 그 동안 통통 불을 대로 불어서 거지반 가슴 전체가 팽팽한 젖둔덕이었다.

한 녀석이 달려들어 양손으로 욕심껏 젖통을 움켜쥐고는 팍 눌렀다. 그러자 서너 줄기의 젖물이 물뚝총을 쏘듯이 짹짹 뻗어나와 다른 녀석의 얼굴에 맞았다. 모두들 낄낄거리며 웃었다. 또 다른 한 녀석이 달려들어 나머지 한쪽 젖통을 붙잡고는 조무래기들을 향해 짹짹 쏘아대기 시작했다. 그 녀석의 입에서는 계속해서 따르르 따르르 하고 따발총을 갈기는 소리 흉내가 제법 그럴듯하게 흘러나왔다.³⁹⁾

- 「무지개는 언제 뜨는가」

세계의 위악함 혹은 비극은 어린 존재들의 성장을 위악한 방식으로 이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양상의 상처를 만들어낸다. 성장은 세계와의 교섭이자 존재의 소통과정이다. ⁴⁰⁾ 윤홍길 소설에 나타난 유소년기에 있는 서술자에게 세계악(世界惡)이 감염되는 양상에 주목하여 본다면 어른들의 폭력을 모방하거나 유소년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도덕적 불감증에 걸려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유소년기에 있는 서술자 〈나〉에게 당숙모가 되는 여자(미친년)에게 동네 조무래기들과 함께 위악한 행동을 하는 장면에서 유소년 서술자 〈나〉는 순수한 동화적 성장기의 종막을 고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그것은 전쟁이라는 상황이 천진한 서술자 혹은 등장인물의 동화적 세계를 파탄시켜 유소년기의 서술자 〈나〉에게 잔혹한 세계악의 진상에 대한 깨달음을 끊임없이 강요한다고 볼 수 있다.

39) 윤홍길, 앞의 책, p 140.

40) 유임하, 「성장과 각성」, 『기억의 심연-한국소설과 분단의 현상학』, 이회문화사, 2002.

체험은 가공되지 않은 어떤 인상에 가깝다. 어린 존재들의 체험은 도식화와 개념적 구성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눈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사건의 전모를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파편적인 인상으로 남을 뿐이다. 이 인상은 체험의 명징함에 비해 사건 전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불투명함을 지닐 수밖에 없다. 역설적으로 인상의 뚜렷함에는 한정된 체험이 가진 불투명함을 내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린 존재들에게 각인된 체험의 인상은 의식적인 것이어서 근원적인 체험으로 자리 잡는다. 그리하여 그것은 사건의 전모에 대한 해석의 욕망을 낳는 글쓰기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상상력이 기억의 저장고에 마련된 근원적 체험들로의 귀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성장기의 존재들이 치른 상처의 지속되는 일면 때문이다. 정신분석학에서 이러한 유년기의 체험이나 성장기의 외상이 그의 삶을 결정짓는 근원성을 갖는다고 가르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점에서 분단과 전쟁의 비극을 체험한 성장기는 경험이 아닌 존재의 근원인 것이다.

결국 유소년화자에 의한 소설은 유소년 시절 분단과 전쟁의 비극을 접했던 작가들이 그들의 기억에 깊이 각인된 원체험에 대한 해명을 통한 자기구원의 글쓰기라는 방법을 드러내고 있다. 자신의 삶에서 이 의문투성이의 체험이 가진 진상을 밝혀내지 않고서는 세계에 대한 의문,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신원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영원히 풀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성장기의 기억 속에 얼룩진 살육과 상처로 남아있는 것은 비극의 근원적인 체험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작가에게 분단소설은 숙명에 가까운 해명 대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회상을 거쳐 비극의 내막과 그 전모를 파악하기까지 도달해야만 하는 인식의 도정은 상처의 환부를 똑바로 응시하는 일이면서, 주체의 자기정립을 거쳐 아버지가 속했던 역사적 현실을 이해하고 좀더 관용하는 일이다. 달리 보아 성장기와 관련된 분단

소설의 성립은 전쟁의 외상으로부터 벗어나 분단 문제에 대한 탈이념적인 인식 혹은 소설적 자아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주체는 자신의 성장기에 가해진 폭력과 상처를 제시하는 한편, 그 광포한 현실에 감염되어 위악함을 모방하며 성장했던 내력을 분단의 현실, 전쟁의 비인간적인 폭력성과 연계시키면서 미학적 효과를 거두는 것이다.

(2) 성년의 경험자

앞에서 살펴 본 '유년의 관찰자'가 천진한 서술자로서, 전쟁이라는 사건의 전모를 이해하는 차원이 아닌 파편적인 인상으로서 자신의 성장기에 가해진 폭력과 상처를 제시하는 특성을 보았다면 이 장에서 살펴볼 '성년의 경험자'는 전쟁의 비극을 관찰할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는 인물들로 특징지을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재난의 충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수난자의 모습뿐만 아니라 생활인으로서 역사적 질곡을 감내하고 극복하려는 모습도 보여준다. 특히 '수난을 당하는 여성'들은 윤홍길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수난 여성 인물형은 「장마」의 친할머니·외할머니, 「황혼의 집」의 할멈, 「무지개는 언제 뜨는가」의 당숙모, 「양」의 윤봉 엄마 등의 인물이 있다. 이들 인물들은 모두 폭력적 현실에 대해서 본능적인 모성성을 보이고 있다. 이 본능적인 모성성은 대개가 가족 구성원에 대한 보호 본능이다. 모성적 존재가 겪는 수난의 현실에는 아버지가 부재하고 있다. 비극이 범람하는 비인간적 현실은 제도와 규율로 대표되는 부성이 사라진 세계인 것이다.

이들 모성은 현실에서 삶의 개인적 고뇌를 짊어진 채 남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궁핍 속에서 자식을 훈육하며 자행되는 세계의 폭력에

굴복하지 않는 주체의 면모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인물상은 재난의 충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수난자의 모습만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수난자이면서도 동시에 일상적 삶을 꾸려나가는 생활인으로서 역사적 질곡을 감내, 극복하려는 집단심성의 이미지로 전환될 가능성을 이미 내재하고 있다. 모성은 혈연에 바탕한 민족적 동질성을 환기하는 화해지향적 민족 심성으로서 상상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장마」, 「무지개는 언제 뜨는가」에서 발견되는 모성상은 화해의 주재자이다. 「장마」에서 보여주는 조모와 외조모간의 갈등은 좌우대립으로 쉽게 치환된다. 작품에서 이같은 민족 내부의 이념적 대립을 두 모성간의 갈등으로 환치한 것은 그 갈등방식보다도 화해의 당위성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둔 결과로 읽혀진다.

“가야 할 디가 보통 먼 질이 아닌디 여그서 이려고 충그리고만 있어서야 되겠능가 자꼬 이러면은 못쓰네, 못써, 자네 심정은 내 짐작을 허겼네만 집안 식구덜 생각도 허야지 자네 노친양반께서 자네가 이려고 있는 꼴을 보면 열매나 가슴이 미여지겠는가”

외할머니는 꼭 산 사람을 대하듯 위를 올려다보면서 조용조용히 말을 건네고 있었다. (중략)

“자네 오면 줄라고 노친께서 여러 날 들어 장만한 것일세. 먹지는 못 할망정 눈요구라도 허고 가소. 다야 자네 노친 정성 아닌가. 내가 자네를 쫓으라고 이려는 건 아니네. 그것만은 자네도 알아야 되네. 남새가 나드라도 너무 섭섭타 생각 말고, 집안 일일랑 아모 걱정 말고 머언 걸음 부테 편안히 가소. (중략) 야한티서 이 얘기는 다 들었소. 내가 당혀야 할 일을 사분이 대신 맡았구라. 그 험헌 일을 다 치르노라고 열매나 수고시켰으꼬. 인자는 다 지나간 일이닝게 그런 말씀 고만두시고 어서어서 땡이나 잘 추시리기라우”⁴¹⁾

- 「장마」

41) 윤흥길, 앞의 책, pp 81~82.

머리카락을 태우며 뱀을 쫓는 외조모의 천도의식은 구렁이를 통해 원혼을 인도한다는 제의형식이다. 하지만 탈주술적(脫呪術的) 입장에서 본다면 외조모의 행동은 무모하기 이를 데 없다. 그러나 여기에는 속신적 세계를 통해 불구적인 현실을 치유하는 문화적 저류 하나가 분단비극의 상징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포착된다. 아들의 전사(동만의 외삼촌)에도 불구하고, 입산자가 되어 생사를 알지 못하는 사돈집 작은 아들의 원귀를 천도하는 역할을 떠맡은 외조모는 세계의 갈등을 한데 용해시켜 버린다.

두 조모의 위엄은 작품 전면에 걸쳐 다른 인물들을 압도한다. 이 같은 주체의 위엄은 장마로 상징되는 비극적 혼돈에 대응된다. 장마의 질척거림에서 헤어나기 어렵듯이, 어둡고 음산한 시대적 상황에서 그 누구도 헤어날 길은 없다. 그것은 역사가 아닌 운명의 상황이다. 그러한 점에서 본다면 두 조모의 행위는 샤머니즘의 외형을 빌린, 견고하기 이를 데 없는 분단현실에서 화해의 필연성을 제고하는 상상적 의식에 가깝다. 그것은 냉전적 사고와 현실의 이념을 초월한 범신론적인 화해가능성의 세계이다.

인류의 사회조직의 최초형태는 가족이며, 정치조직의 최초형태는 가장이 왕이 되는, 가족의 단순한 확대형태이다. 가족사회의 주재자인 모성은 결국 극한적인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상징적 화해를 극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현실세계에서의 갈등과 죽음까지 감싸 안는다.

「장마」가 얽히고 설킨 현실의 혼돈에다 설정한 대립항으로, 화해와 원용을 주관하는 심성의 주체로서 모성을 부각시킨 것은 무엇보다도 현실세계의 대립코드를 화해의 가능성으로 변전시키려 한 작가의 의도이다.

큰 당숙의 손이 거적문에 거와 닿으려는 순간, 새되게 부르짖는 외마디소리가 측간 안에서 빨래줄처럼 뻗어 나왔다. 그 사품에 아버지와 큰 당숙이 마치 어떤 엄청난 힘에 떠다박지름이라도 당한 것같이 냉큼 뒤로 물러섰다. 나는 그때 거적문에 푹 꽃혔던 예리한 낫날이 도로 쭉 빠지면서 측간 안쪽으로 사라지는 모양을 푹푹히 보았다.

(중략)

그토록 오래 참고 기다린 보람이 있어 마침내 당숙모가 모습을 드러내었다. 거의 별거벗은 거나 다름없는 해괴한 차림으로 당숙모는 품에 안긴 갓난애한테 젖꼭지를 물린 채 거적문을 들치고 나와서는 아무데나 대고 함부로 낫을 휘둘러대기 시작했다. 눈동자가 휘까닥 돌아버린 상태였다. 어느 누구도 당숙모에게 접근을 못하고 엉거주춤 뒤로 물러서기만 했다. 눈자위를 허영게 뒤집어 칸 채 이를 악물고 낫자루를 휘두르면서 당숙모는 뒷걸음질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42)

- 「무지개는 언제 뜨는가」

「무지개는 언제 뜨는가」에서 모성의 힘은 「장마」에서 보았던 조모와 외조모 간의 갈등 해소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시대현실과 접합되고 있다. 빨치산 습격으로 가족을 잃고 실성한 당숙모는 겁에 질리기만 하면 자신이 치욕스럽게 살아남았던 똥통에 다시 들어가는 기행을 보인다. 하지만 그녀는 마을 사람들이 보복에 맞서 좌익인 차서방의 남겨진 갓난 아이를 양육해 나간다. 모성은 분단의 비극적 현실과 같은 시기에 황폐화된 현실을 넘어서기 위한 주체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수난을 겪어내는 모성’ 다음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유형은 전쟁을 경험한 후 어떠한 광적인 행동을 보이는 인물이 있다. 윤홍길 소설에서 광적 행동을 보이는 인물은 「장마」의 친할머니, 「황혼의 집」의 경주 엄마, 「무지개는 언제 뜨는

42) 윤홍길, 앞의 책, p 90.

가」의 당숙모, 「霧堤」의 봉무제·외삼촌 등이다.

현대의 고도로 합리화된 산업 조직과 극도의 霧堤 이용과 직무의 세분화 속도작업화 등은 불가피하게 근로자를 생산 霧堤의 일부분처럼 만들어 버렸다. 어찌보면 霧堤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과 자유를 부르짖을 수 있을 듯하나 이것은 한갓 관념일 뿐 사실은 霧堤처럼 세찬 힘을 가지고 인간을 지배하는 것도 없다.

더욱이 그것이 단지 생산고를 증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霧堤는 바로 거대한 지배와 압제의 상징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은 기계라는 단어와 무제가 질서정연하게 뒤바뀌어 있는 예였다.

(중략)

그는 자기가 맡은 저서의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될 만한 몇 개의 단어를 용케도 골라 그것을 모조리 무제로 바꾸어버리는 것이었다. 책에 따라서 무제로 둔갑되어 나타나는 단어는 때문에 늘 일정치가 않았다. 때로는 사랑이 바다의 안개가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역사나 경제가, 민족이나 인격이나 조경(造景) 혹은 종묘(種苗)가 번차례로 안개에 싸여 가공의 육지를 형성하기도 했다. 43)

- 「무제」

「霧堤」의 봉무제 씨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완벽한 문선을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보기엔 분명히 고의적인 행위라고 혐의를 받아 마땅한 실수를 저지름으로써 번번이 우스꽝스런 괴짜가 되곤 한다.

무제(霧堤), 배 위에서 보면 마치 육지처럼 보이는 먼 바다의 안개라는 뜻으로 문선공 조현봉 씨가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끊임없이 집착하는 화두이다. 이 소설의 서술자인 내가 그를 알게 된 때부터 그를 자기 고모부와 동일시

43) 윤흥길, 앞의 책, pp 42~43.

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실 그는 여러 가지 점에서 나의 고모부와 비슷한 면을 지니고 있다. 단적으로 말해서 이 두 사람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분단의 비극을 표상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우선 두 사람은 이산가족의 아픔의 당사자들이라는 점에서 공통성을 드러낸다. 그리고 고모부가 생활의 무능력자라는 점에서, 봉씨가 유능한 문선공으로서의 역량을 간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선공으로서의 치명적인 약점(‘무제’라는 오식을 완고하게 되풀이하는)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양자는 모두 자신들의 쓰라린 과거인 이산가족의 아픔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위인들이다. 말하자면 그들은 모두 과거의 아픔 속에 사로잡힌 나머지 당면한 현실에 대처할 만한 능력을 상실한 일종의 신경성질환의 소유자들이다. 고모부가 이복에 남기고 온 자기 아들에 대한 기억이 차츰 흐려져가는 사실을 안타까워하는 것이나, 봉씨가 완고하게 ‘무제’라는 오식을 되풀이함으로써(실상은 병적인 증상으로 봐야 하겠지만)당면한 문선공으로서의 자신의 조건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은 모두 동일한 병원체에서 연유된 양면성일 뿐이다.

동근이의 입적 문제가 선뜻 결말을 못 보고 있는 그 사이에 큰당숙네 집 봉당에서 불이 났다. 불길은 차곡차곡 쌓아올린 벧단에서 일어나 안방 쪽과 건넌방 쪽을 양갈래로 위협했다. 불길 속에서 부지깽이를 손에 든 작은 당숙모가 껍뻍 기성을 질러대며 너울너울 춤을 추고 있었다.

가까스로 불길이 잡힌 다음에 집안 어른들이 우리집에 모여 회의를 했다. 결국 동근이를 우리 김씨 집안 호적에 올릴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당숙모하고 동근이의 사이는 이제 그 무엇으로도 갈라놓을 수 없는 기정사실의 모자지간이었다. 44)

- 「무지개는 언제 뜨는가」

44) 윤흥길, 앞의 책, p 102.

「무지개는 언제 뜨는가」에서 시대현실은 당숙모의 병리적인 형태를 염두에 둔다면 쉽사리 정리될 수 있다. 그것은 당숙모의 광기에 있지 않고 광기 가득한 세계에 시선을 돌리게 한다. 빨치산의 꼬나풀인 차서방만이 아니라 그녀의 죄없는 가족까지 살해당하는 현실은 이성으로 통제될 수 없는 집단적 광기의 한 단면을 드러낸다. 그 살육행위는 이념의 좌우를 막론하고 자행된 폭력과 광기였던 것이다. 당숙모의 광증은 이 같은 시대의 광기에 광기로 맞서는, 지극히 합당한 행위이다. 동네 사람들의 살육 현장에서 차씨 집안의 어린 소생을 거두어 생명을 보존시켜려는 당숙모의 집착은 필사적이다.

자신의 안위나 체면을 돌보지 않는 이 모성애는 생명에 대한 집착이다. 하지만 그 의미는 좌우대립과 살육의지를 무화시켜 버리는 분단현실의 화해의지의 다른 이름이다. 그녀의 이 같은 광기에 가까운 집착은 이 유복자를 자신의 집안에 입적시키려는 노력으로 나타난다. 그녀는 집안 사람들의 편견과 동리 사람들의 뿌리깊은 완고함에 다시금 광기로 대응한다. 그녀의 광기는 시대의 광기에 비하면 지극히 '정상적'이다. 혈연이나 적대성, 원한 유무에 상관없는 생명애는 「장마」에서의 속신적 화해에서 보다 진전된 모습으로 읽혀지는데, 그 이유는 「장마」에서 보았던 모성의 비타협적인 속신을 방불케 하면서도 원수의 자식을 지키려는, 이념을 초월한 현실과 싸우는 모성상이기 때문이다. 산발한 채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양식을 구하고 양식이 떨어질 때 쯤 다시 광기가 발동하는 당숙모의 광기 어린 집착은 아들(동근이)을 김씨 집안 호적에 올림으로써 자기 자신의 아들임을 떼땀이 동네 사람들로부터 인준받는 데서 마감된다.

2) 사건의 갈등 양상

「장마」와 「무지개는 언제 뜨는가」 두 작품은 참혹한 전쟁을 배경으로 순진한 어린아이가 설정된 성장소설이기도 하며, 분단현실 속에서 인물들의 대립과 갈등을 통해 새로운 세계와 질서로 나아가는 분단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두 작품의 긴장을 유지하는 인물과 인물의 대립, 인물과 현실의 대립양상을 통해 어린 화자와 화자를 둘러싼 주변 인물들은 시련을 겪게 되지만 이런 대립과 갈등은 통합적 화해로 나아가는 통과제의의 형식을 띠고 있다. 따라서 두 작품에 제시된 대립성을 먼저 파악하는 것은 윤흥길 작품의 궁극적 도달점인 화해의 의의와 가치를 분석해 내기 위한 첫 단계로 볼 수 있다.

(1) 사건의 서사

윤흥길의 '장마'와 '무지개는 언제 뜨는가' 두 작품은 한국전쟁이 일어나 인민군이 내려온 인공치하의 상황과 인민군이 물러간 뒤 빨치산이 산 속으로 들어가 활동하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두 작품은 공간적 배경과 화자의 설정에 있어 동일성을 갖고 있고, '장마'에서 할머니의 죽음 이후를 '무지개는 언제 뜨는가'에서 시간적 배경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외삼촌, 삼촌, 할머니에 대한 언급이 이야기 곳곳에 등장하여 두 작품의 연결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장마'의 관찰자적 화자였던 '나'(동만)가 '무지개는 언제 뜨는가'의 화자로 등장하며, 무속적인 외할머니의 주술과 초자연적 예감, 국군으로 죽은 외삼촌, 건지산의 빨치산, 비 등이 동일한 소재로 등장하며 작품에서 유사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장마'에서 주로 다루어지던 '나'의 가족 이야기는 '무지개는 언제 뜨는가'에서

문중 사람들의 이야기로 환치된다. 또, '장마'에서의 관찰자적 화자가 소년인 '나'이지만, '무지개는 언제 뜨는가'에서는 관찰자적 화자가 유년기에 전쟁을 체험한 뒤 성인이 된 '나'이고, '장마'에서는 유년기 '나'의 의식 성장을 다루고 있다면, '무지개는 언제 뜨는가'에서는 나의 사촌인 '동근'의 삶과 변모를 다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장마'와 '무지개'라는 제목에서 연상되는 바와 같이 비와 무지개의 상관은 작품 내용에서도 연계성을 지니고 있다. '장마'에서 비의 그침으로 종결되는 그 지점에 '무지개는 언제 뜨는가'의 비가 재등장한다.

작품의 전체구조 속에서 대립과 화해의 사유 양상이 어떤 단계적 변화와 발전을 거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두 작품의 서사 단락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장마」

1. 외할머니는 '이 빠지는 꿈'을 통해 불길한 예언을 함
2. 외할머니는 국군이었던 외삼촌의 전사 통지서를 받음
3. 외할머니가 건지산의 빨치산을 향한 저주의 말을 함
4. 빨치산 아들을 둔 할머니와 국군으로 전사한 아들을 둔 외할머니가 대립
5. 가족과 상봉한 삼촌은 외할머니의 발소리에 놀라 산으로 도망침
6. 나는 형사의 초콜렛에 넘어가 삼촌이 집에 다녀간 사실을 폭로하고 스스로 상처받음
7. 삼촌에 대해 누설한 일로 할머니의 미움을 받게 되고 외출금지령이 내려짐
8. 할머니는 신탁을 받고 삼촌이 올 날을 기다리나 삼촌 대신 구렁이가 들어옴
9. 외할머니는 삼촌 대신 들어온 구렁이를 민간신앙을 통해 주술적으로 안내함
10. 정신을 차린 할머니는 외할머니와 화해한 후 나를 용서하고 숨을 거둠

서사단락 1,2는 불길한 꿈의 예언과 외삼촌의 죽음을 다루고 있는 단락으로 인물들의 '혼돈과 무질서 상태'가 의식과 무의식을 넘나드는 꿈, 칠혹같은 밤, 장마, 사납게 짚어대는 개 등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다. 서사단락 3,4,5,6,7은 혼돈과 무의식을 깨고 '분별과 대립'이 생겨 갈등이 심화되는 단계이다. 따라서 '나'와 하나였던 가족과의 관계에서 죄의식이 형성되고, 할머니는 외할머니와 대립하며, '나'는 형사로 대변되는 현실 속에서 최초의 불신과 배반을 경험한다. 서사단락 8,9,10은 삼촌이 구렁이라는 영적 존재로 귀향을 하고 이를 외할머니가 영매와 주술이라는 제의적 형식을 통해 인도함으로써 집안에 존재하던 갈등 분열, 대립을 극복하고 '화해와 용서의 단계'로 발전한다.

「무지개는 언제 뜨는가」

1. 동근이가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금의환향 함
2. '나'는 동근이의 귀향을 전해 듣고 미친 당숙모를 회상
3. 당숙모는 빨치산의 습격으로 가족을 모두 잃고 미쳐버림
4. 빨치산인 차씨네 집은 우익의 보복을 받아 모두 죽고 갓난아기(동근)만 생존
5. 당숙모는 갓난아기(동근)를 안고 도망쳐 차씨의 집에서 살게 됨
6. 집안의 강한 반대에도 당숙모는 동근이를 호적에 올리고 자식으로 키움
7. 당숙모의 죽음 이후 구박을 못 견디던 동근은 돈을 훔쳐 달아남
8. 갓은 고생 끝에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문중의 시제에 참석하여 가문의 일원으로 받아 들여짐
9. 나의 아내가 동근이에게 호감을 가짐
10. 나는 동근이를 맞아들이며 그가 당숙 부부의 얼굴을 닮았다고 생각함

서사단락 1,2 는 현재 어른의 시점에서 유년시절 과거의 한 인물을 떠올리며 현재와 과거를 넘나드는 정신적 혼돈을 다루고 있다. 서사단락 3,4는 당숙모 가족의 죽음과 가산아기(동근)가족의 죽음을 다룬 것으로 무질서하고 불규칙한 ‘삶의 혼돈’이 줄기차게 내리는 비, 두억시니 같은 어둠, 개들의 울부짖음, 외할머니의 초자연적인 예감 등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서사단락 5,6,7 은 모자관계가 된 당숙모와 동근이 문중과 갈등을 겪게 되고, 특히 당숙모의 죽음이라는 또 하나의 분리의 과정은 동근이 모성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자아로 독립하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문중과의 대립이 심화되어 문중과 치열한 분열의 상황을 맞이하는 계기도 된다. 서사단락 8,9,10 은 동근이 내면의 갈등을 극복하고 문중과의 대립을 화합으로 이끌기 위해 각고의 노력 끝에 성공하여 귀향한 것이며, 문중의 시체에 참석하여 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혈연공동체로 회귀함으로써 일체감을 피하는 ‘화합의 단계’에 도달한다.

(2) 대립과 갈등의 구조

두 작품의 서사단락에 의해 도출된 것을 정리하여 구성단계별⁴⁵⁾로 공통소를 추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45) 서사단락의 구조를 구분하는 방법은 ‘성장소설’에서의 서사적 특성 방법을 이용하면 이해가 쉽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시간구조에 따라 순차적이고 연대기적으로 나눈 과정을 다시 분리(separation)-전이(traslation)-결합(incorporation)이라는 방식으로 텍스트를 구분하고자 한다.

단계	1. 분리	2. 전이	3. 재결합
「장마」의 서사단락	불길한 꿈의 예언과 외삼촌의 죽음 통보	외할머니와 할머니의 대립 '나'와 할머니의 갈등	삼촌의 영적 존재인 구령이의 인도 할머니와 외할머니 화해 할머니가 '나'를 용서
「무지개는 언제 뜨는가」의 서사단락	당숙모가족의 죽음과 갓난아기 가족의 죽음	문중과 당숙모의 대립 문중과 동근의 대립	동근의 시체 참석 '나'와 동근의 만남

분리 1의 단계에서 외할머니의 꿈(장마)과 죽음에 대한 초자연적 예감(무지개는 언제 뜨는가)이 등장한다. 여기서 꿈과 초자연적 예감은 유아기의 세계 뿐 아니라, 가장 원시적인 본능의 수준에까지 올라가서 일종의 유사이전의 것들을 회상하고 예견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꿈속에서는 무의식이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미분화되어 있고, 시 공간이 뒤섞여 있다. 두 작품에서는 공통적으로 밤, 장마, 죽음 등의 혼돈의 이미지, 삼촌의 죽음, 당숙모 가족의 죽음, 빨치산 가족의 죽음과 같은 암흑의 이미지가 등장한다. '죽음'을 계기로 하나의 공간이었던 혼돈의 세계는 이승과 저승이라는 분할의 의미가 인간의 의식에도 스며들어 이분적인 대립과 갈등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죽음의 과정을 통해 '분리'의 단계는 '전이'의 단계로 변화한다. 천상과 지상을 일원적으로 연결하는 '비'의 속성을 지닌 분리1의 무질서와 혼돈은 양분되어 대립과 갈등의 시작점인 전이의 세계로 향한다. '장마'의 장대같은 비 속에서 전해지는 외삼촌의 전사통지서와, '무지개는 언제 뜨는가'에서 즐기차게 내리는 빗속에서 벌거벗다시피한 당숙모가 갓난아에게 젖을 물리고 출현하는 것 등은 모두 인물과 집단간의 표면적 대립과 분할의 전조로 볼 수 있다.

분리단계의 혼돈과 어둠 상태는, 전이 단계에서 분리 의식 상태가 등장함으로써 갈등과 대립의 상황으로 변화한다. 그리하여 '장마'에서 '나'의 집은 외삼촌의

죽음 이후 외할머니의 빨치산에 대한 저주와 함께 할머니와 대립하고 이는 공간적으로 안방과 사랑방이라는 경계 분할을 가져온다. 할머니와 외할머니가 각각 기거하는 안방과 사랑방이라는 공간은 갈등의 시작과 동시에 공간의 교류와 의사소통조차 소멸되는 표면적 대립을 이룬다. 그리하여 '장마'에서는 국군인 외삼촌과 빨갱이인 삼촌, 외할머니와 할머니, 사랑방과 안방 등으로 이분법적 대립을 이루고, '무지개는 언제 뜨는가'에서는 빨치산으로부터 피해 받은 집안과 우익 청년들에게 피해 받은 빨치산의 아들이 이분법적인 대립을 이룬다.

<표면적 대립>

「장마」 : 국군(외삼촌)-----빨치산(삼촌)
 외할머니 ----- 할머니
 사랑방 ----- 안방

「무지개는 언제 뜨는가」 :

빨치산으로부터 피해 입은 '나'집안----- 우익청년에게 피해 입은 빨치산의 아들'동근'

「장마」에서 돈독한 사돈지간인 두 노인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데올로기로 인하여 원수지간이 된다. 즉 국군에 입대한 외삼촌의 죽음→외할머니의 빨갱이에 대한 저주→삼촌에 대한 저주→외할머니와 할머니의 극단적 대립으로 연결성을 지니며 갈등이 고조된다. 이는 이념, 시대, 정치에 무지하지만 모성적 존재로서의 할머니와 외할머니는 자식의 일로 대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는다. '무지개는 언제 뜨는가'에서도 마찬가지다. 우익으로 표상되는 '나'의 문중과

좌익으로 표상되는 동근이 사이에 비이성적 존재인 당숙모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갈등이 한 문중 내에 그렇게 첨예하게 대립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즉 좌우익의 대립이 작은 공간에 공존하지만 그 내부에 있는 인물들은 분단현실이나 이념적 양분이라는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을 지니지 못하고, 단순히 인물간의 외적갈등을 심화시킨다. 이런 맹목적 대립은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기 때문에 논리의 차원으로 해결될 수 없다. 두 작품에서 전개되는 대립과 갈등의 양상은 '전이'의 단계에 속하며 이는 다시 3단계의 과정으로 전개된다.

작품 \ 단계	분리 단계	전이 단계		
		갈등의 시작	갈등의 전개	갈등의 고조
「장마」	외삼촌의 죽음	외할머니의 빨갱이에 대한 저주	삼촌에 대한 저주	외할머니와 할머니의 싸움과 증오
「무지개는 언제 뜨는가」	당숙모 가족과 빨치산 가족의 죽음	당숙모와 동근의 만남	당숙모가 동근을 호적에 올림	당숙모의 죽음과 동근의 가출

전이단계는 대립이 심화된 상태이다. 분리와 분별이 일어나지 않는 혼돈의 상태에서 벗어나 분리와 분별이 생겨 대립의 상태가 심화 발전된 것이다. 여기서 대립은 다시 3단계의 과정을 통해 대립과 갈등이 순차적으로 전개되는데, 전이단계의 절정은 재결합 단계로 반전하기 위해 증오와 미움이 최고조에 이르는 상황이 된다.

두 작품이 모두 한국전쟁 후 좌우의 이데올로기가 번갈아 지배했다는 시간적 배경을 참고로 할 때 그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원하던 원치 않든 어느 한편을 선택받도록 강요당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민중들은 이념에 대한 이해가 없었고⁴⁶⁾ 특히 두 소설의 공간적 배경이 전라도의 시

골마을로서 농사를 짓고 살던 순박한 사람들은 정치와 이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두 작품을 통틀어 시국에 대한 자기 생각을 갖고 있던 유일한 인물은 '나'의 외삼촌으로 파악되며, 나머지 인물들은 이념에 대해 무지한 상태였다. 따라서 '장마'에서 아들의 죽음으로 인한 빨치산에 대한 저주는 빨치산을 아들로 둔 할머니에겐 자신의 아들을 향한 저주였고 따라서 할머니와 외할머니는 대립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무지개는 언제 뜨는가」에서 '핏덩이'와 미친 당숙모와의 만남은 이념, 이성 이 제거되고 모성이라는 절대논리의 세계만이 남게 된다. 핏덩이를 잃은 모성적 존재인 당숙모와 어머니가 필요한 갓난아기의 만남에 이데올로기가 끼어 들어지는 없다. 그러나 빨치산으로부터 친족이 죽음을 당한 '나'의 집안 사람들, 그리고 우익 청년들로부터 빨치산 가족이라는 이유로 가족이 몰살당한 핏덩이(동근)의 만남은 당시로서는 공존불가능한 좌우익의 만남이라고 상정할 수 있으며 동시에 동근과 김씨 문중 갈등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두 작품에서 보여주는 '외할머니와 할머니의 대립', '동근과 김씨문중의 대립'은 당시 사상에 무지했던 민중이었지만 이념이라는 심층적 갈등이 본능적인 모성으로 표출되어 대립이 노골화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여기서 모성은 강인함, 포용력, 생명력이라는 민중적 속성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당숙모의 광신적인 모성애는 강압적 사회가 개인에게 줄 수 있는 비극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극을 극복해 가는 모성애나 효성을 통하여 가족 공동체를 유지해 가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윤흥길은 무지하면서도 무속적 정신세계에 속하는 두 노인, 시대와 전쟁의 희생자인 당숙모, 동근, 김씨 문중 사람들을 통해 역

46) 김영화, 「장마와 무지개」, 『분단상황과 문학』, 국학자료원 1992. p53.

사와 삶의 주변에서 혼란한 변동기의 상황을 민중으로 대변되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왔나를 보여주고 있다. 즉 두 작품 모두 한 집안과 문중 안에서 이루어지는 갈등과 대립인 동시에 한국사회의 비극을 그대로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분단이라는 배경 속에 위치하고 있는 대립과 갈등의 문제들은 각각의 작품에서 아이러니라는 기법을 통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3. 아이러니의 양상

앞장에서 분석한 인물의 특성과 사건의 갈등 양상을 바탕으로 주제의 구현 양상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윤홍길 소설의 주제형상화는 주로 아이러니라는 기법의 힘을 얻으면서 완성된다. 아이러니는 본질적으로 복합성을 띠고 있다. 이런 복합성은 어떤 대상을 한 방향에서만 생각하는 편협함을 극복하고, 복잡하게 얽혀진 혼란 속의 모순점들을 양면성으로 포괄한다. 즉, 전쟁과 분단에 대한 작가의 복합적 인식은 아이러니라는 기법적인 면과 결합되어 화해와 결합을 갈망하는 주제의식으로 나아간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뮤크(D.C.Muecke)가 제시하는 아이러니 유형을 기준으로 '상황의 아이러니', '말의 아이러니', '순진성의 아이러니'로 나누어 그에 따른 주제의 구현 양상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1) 상황의 아이러니

소설 속에서 전개되는 상황의 아이러니⁴⁷⁾는 주로 반전에 기인한 것이다. 자신

47) 뮤크(D.C Muecke)는 아이러니를 말의 아이러니와 상황의 아이러니로 유형화하고 있다. 말의 아이러니는 아이러니스트가 말이나 다른 매개(표정이나 몸짓 등)를 통하여 무

이 소원하고 확신하는 일이 결국 정반대의 상황으로 빚어지는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소설 속에서 일어나며 이 반전은 작품의 완성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소설 속에서 어떤 인물이 그 자신의 맹목적인 자신감이나 순진한 무지(無知)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사정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못하여 희생을 당하는 것 역시 상황의 아이러니로 설명할 수 있다. 천진한 주인공(naive hero) 또는 천진한 화자나 대변인이 등장하며 그들은 위선이나 모순된 상황을 폭로하는 정체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당연한 상식이나 단순한 순진성 또는 무지는 위선의 복잡성을 밝혀내고 편견의 비합리성을 폭로하는 데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황혼의 집」은 전쟁으로 인해 경주네 가족이 몰락해 가는 과정을 어린이인 ‘나’의 눈을 통해 그리고 있다. 경주네 오빠는 빨갱이가 되어 돌아오지 않고, 경주네 엄마는 그 아들 때문에 눈물의 세월을 보낸다. 그런 엄마를 위해 경주네 큰언니는 빨갱이가 된 동생에게 자수의 길을 터 주려고 힘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 다닌다. 그러던 중 협잡꾼한테 걸려 강간을 당하고 그 다음날 목을 매단다. 경주네 작은언니는 실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주네 엄마를 두고 집을 나가버린다. 결국 경주네 엄마는 실성을 하고, 어느날 갑작스레 날아든 유탄에 주막집이 폭삭 내려앉아 그들은 사라져 버리게 된다.

엇인가를 가장(simulation)하거나, 아닌 것을 그런 척하거나, 그런 것을 아닌 척 함으로써 형성되는 아이러니를 일컫는다. 아이러니스트가 말이 아닌 다른 매개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행동의 아이러니라고도 한다. 말의 아이러니와는 달리, 어떠한 상황을 목격하거나 관찰한 사람이 그 상황을 아이러니컬하다고 생각함으로써 성립되는 아이러니는 상황의 아이러니이다. 침착하게 남의 주머니를 훔치고 있는 사이에 정작 자신의 주머니가 털리고 있는 것은 눈치채지 못하는 소매치기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D.C Muecke, 『아이러니』, 서울대출판부, 1986.

이러한 비극을 지켜보면서 ‘나’는 어느새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 ‘나’의 성장은 벌레 먹은 어금니를 뽑아 버린다는 행위로 암시될 수 있을 것이다

① “저기서 우리 큰언니가 목매달고 죽었단다.

계집애는 회초리를 휘둘러 머리 위의 쇠사슬을 힘껏 후려갈겼다. 계집애가 가진 좋지 않은 버릇 중의 하나였다. 그래서 나는 계집애가 들려주는 음산한 애기와 우리들 머리 위를 시계추처럼 천천히 왔다갔다 하면서 쇠사슬들이 서로 맞부딪쳐 내는 날카로운 쇠소리를 함께 듣는 때가 많았고, 그럴 때면 꼭 살구라도 씹은 듯이 벌레 먹은 어금니가 시려서 얌전히 앉아 있질 못했다.⁴⁸⁾

② 경주네 엄마는 어머니라기보다 차라리 할머니라고 해야 어울릴 정도로 흰머리가 많고 쪼글쪼글 시든 얼굴이었다. 또, 사람들은 실제로 그녀를 할멈이라고 불렀다. 할멈의 우는 시간은 딱 정해져 있었다. 사흘 아니면 나흘 만에, 어떤 때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며칠을 계속해서, 언제나 짐체를 사를 듯한 붉은 햇살이 주막 창문에 번득이기 시작하면 할멈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처참한 소리로 울부짖었다. 여우의 목청마냥 길고 날카로운 부르짖음으로 시작하여 밀도끝도없이 계속되는 그 울음은 누구의 도움을 받을 욕심으로 일부러 것처럼 엄살을 피우는 것같이 들렸고, 누구의 잘못을 호되게 나무람하는 것 같기도 했고, 어떤 참을 수 없는 아픔을 아무에게나 호소할 때 사람의 입에서 당연히 흘러나오는 그런 무시무시한 비명으로 생각되기도 했다. 이 울음 소리가 들리면 나는 벌레 먹은 어금니 하나가 쭈서서 건달 수가 없었다.⁴⁹⁾

③ 이젠 주막집 유리창에 번득이던 저녁놀을 영영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 대신 이듬해 봄이 되자 불에 타죽은 줄 알았던 담쟁이덩굴이 한해 동안의 긴 몸살에서 일어나 나를 놀라게 하였다. 벽돌집 전체가 무성한 잎에 싸여 온통 푸르게 보이던 어느 날, 나는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오래도록 사사건건에 말썽을 부려온 왼쪽 충치를 뽑아 버렸고, 그것을 지방 위에 던졌다. 그뒤로도 마을 아낙네들은 우리집에 자주 놀러 왔으나 새삼스럽게 경주네

48) 윤흥길, 앞의 책, p 225.

49) 윤흥길, 앞의 책, p300.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내가 새 이빨을, 까치가 물어다줄 건 강한 이빨을 기다리는 동안, 어머니와 아낙네들은 어느새 이웃에 새로 이사온 어떤 새댁의 나쁜 행실에 관해서 열심히들 수군거리고 있었다.⁵⁰⁾

위의 ①과 ②에서처럼, ‘나’는 경주로부터 경주네 큰언니의 끔찍한 죽음에 대해 들을 때마다, 그리고 무시무시한 경주네 엄마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항상 별레 먹은 어금니의 통증을 느낀다. 그러나 ③에서 ‘나’는 그 충치를 뽑아 버리고, 건강한 새 이빨을 기다리면서 성장의 아픔을 견뎌 내게 된다. 또한 봄이 와도 잎사귀가 돋지 않던 철공소에 담쟁이덩굴이 자라남으로써 ‘나’의 밝은 미래를 예시한다.

현실상황에 무지한 어린 경주와 경주어머니는 자신에게 닥친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조차 모른다. 주인공 모녀가 전쟁으로 상징되는 세계, 즉 운명을 거스르지 못하고 운명의 희생양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과 사회의 비극적 섹채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바라보고 작품을 서술하는 화자인 ‘나’는 정신적인 성숙을 이룩한다. 「황혼의 집」의 끝 부분에 나타난 소멸 후의 재생이 나타나는 부분은 전쟁과 몰락의 비극적 체험·목격이 ‘나’에게는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음을 회상하고 있다. 이는 이중의 의미구조에서 오는 ‘상황의 아이러니’라 할 수 있다.

“이놈아, 노상 죄 없는 얼굴만 때리지 말고 다른 데도 좀 돌아가며 때려라!”

그 순간 나는 내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내가 잘못들은 게 아니라는 사실이 이내 밝혀졌다.

“지난번에 맞은 자리가 아직 풀리지도 않았는데 또 거기만 때리면 이 애비는 어찌란 말이나, 이놈아!”

하도 어이가 없어 나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도 못했다.⁵¹⁾

50) 윤희길, 앞의 책, pp309~310.

위 예문은 「무제」에서 고모부가 월남 후 재혼하여 낳은 망나니 아들에게 얻어맞으면서 비명을 지르듯 하소연하는 장면이다. 늙은 고모부 입장에서는 매를 맞는 것이 북에 두고 온 아들에게 속죄를 하는 길이다. 그러나 독자로서 자식에게 얻어맞는 부모의 모습을 상정하는 것은 다소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비극은 궁극적으로 분단과 이산에서 유래한다고 볼 수 있으며, 충격적인 상황설정에서 아이러니가 드러난다.

「무지개는 언제 뜨는가」는 「장마」의 후편에 속한다. 「장마」의 견지산과 동만이 이 작품에서도 나타나며, 부역한 삼촌, 국군 장교로 전사한 외삼촌, 빨치산으로 죽은 삼촌을 대신하여 나타난 구렁이 등도 등장한다. 이 작품에서 '나'의 당숙모는 빨치산에 의해 남편과 자식들이 불에 타 죽는 것을 보고 실성해 버린다. 그런데 빨갱이인 차서방네 일가가 원한에 찬 사람들의 습격을 받아 몰살을 당한 날, 당숙모는 거기서 살아남은 갓난애를 집안 어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길러 낸다. 또 그 갓난애가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자 당숙모는 동근이라는 이름으로 호적에 올리기까지 한다. 그러나 당숙모가 세상을 떠난 후 집안의 구박으로 거의 동네에서 내쫓기다시피 한 동근이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종중(宗中)의 제사에까지 참석하게 된다. 그리고 동근은 자신을 좌익과 우익의 합작품이라 자처하며 오늘날의 자기가 있는 것은 모두 어머니 덕분이라고 한다. 그래서 '나'는 어느새 동근을 자신의 핏줄로 여기게 된다는 줄거리이다.

“저 동근입니다, 형님!”

51) 윤희길, 앞의 책, p 320.

아내를 한걸음 앞질러 낯선 청년이 마당으로 쭉 들어서면서 이렇게 외쳤다. 나는 그 순간 말문이 딱 막혀 자기가 김동근임을 자처하는 그 낯선 청년을 우두커니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렇게 한참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이에 나는 그가 전혀 낯선 얼굴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전에 어디선가 많이 보았던 얼굴임을, 다시 말해서 절반은 우리 당숙을 닮고 나머지 절반은 우리 당숙모를 닮은 듯한 생김새를 차차로 깨닫게 되었다. 52)

- 「무지개는 언제 뜨는가」

동근을 본 순간 그가 절반은 당숙을, 나머지 절반은 당숙모를 닮은 듯하다고 느끼는 장면은, 그가 이데올로기로서의 합작품이 아니고 핏줄로서의 합작품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는 한국전쟁 때 남편과 아이들이 불에 타죽은 것을 보고 미쳐버린 여자가 과거 자기 집에 불을 질렀던 공비 일행중의 하나인 원수 차서방의 자식에게 젖을 물리면서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다는 플롯의 설정에서부터 아이러니가 나타난다.

“그나저나 저 사람이 참 안됐구만, 오직 자식 생각이 간절했으면 뿔쟁이 새끼를 안내놓겠다고 저 극성일꼬”

아낙네들이 끼리끼리 모여 쭈군거리고 있었다. 53)

- 「무지개는 언제 뜨는가」

위 인용문은 미친 당숙모가 간절한 자식 생각에 원수 차서방의 자식을 키우려 마음먹고 주변의 만류를 뿌리치며 저항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작가는 결말

52) 윤흥길, 앞의 책, p13.

53) 윤흥길, 앞의 책, p20.

부분에서 포용과 화해를 통해 전쟁과 분단의 비극을 종식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
고자 한다.

운명의 아이러니는 신이나 숙명이나 우주의 진행이 주인공으로 하여금 헛된
희망을 품도록 조롱하고 나서 그를 좌절시키거나, 조롱하려는 것처럼 표현하는
아이러니이다.⁵⁴⁾ 그러므로 운명의 아이러니는 운명의 장난을 다루며, 주인공의
종말은 그가 의도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로 되는 경우이다.

소년병은 우리 막내가 귀엽고 대견해 죽겠다는 표정으로 무등을 태운 채
정자둘레를 한바퀴씩 돌곤 했다. 어느 누구도 감히 우리 형제를 괘시하지 못
했다. 남들이 모두 알아주는 동생을 가졌다는 건 바꾸어 말해서 웬만큼 거들
먹거리봐도 별로 흉잡힐 일이 안되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윤봉이는 유혹에 약
했다. 사람들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윤봉이를 움질일 수 있었다. 몇 마디
칭찬의 말로 태업을 감아주기만 하면 되었다. ⁵⁵⁾

- 「양」

위의 인용문은 천진하고 어리석은 윤봉이가 주변의 칭찬을 받고 마냥 기뻐하
며 행복해하는 장면이다. 그러나 칭찬 받은 이유였던 인민군가 바로 그것 때문에
상황이 바뀐 후에는 저주의 노래로 변하여 도리어 궁지에 몰리고 불행하게 된다.
이는 상황의 아이러니라고 볼 수 있다.

「장마」에서는 아들의 전사소식을 접한 외할머니의 모습에서 죽음의 아이러

54) 뮤크는 '죽음의 아이러니'와 '운명의 아이러니'를 '상황의 아이러니'와는 별개의 것으로
보고 있지만, 자신이 소원하고 확신하는 일이 반대방향으로 흐른다는 상황의 입장에서
본고에서는 '죽음의 아이러니'와 '운명의 아이러니'를 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상황의 아
이러니'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55) 윤흥길, 앞의 책, p90.

니⁵⁶⁾가 나타난다.

“이날 입때까장 내 꿈은 틀린 적이 없었니라. 무신 일이 생길 적마동 이 에 미가 꾸는 꿈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니라.”

머리를 뒤로 한껏 고자세를 하고 앉아서 외할머니는 자기 선견지명을 그제 까지 몰라준 두 딸에게 잠시 면박을 주었다. 얼굴이 다시 별정계 달아 있었다. 딸들을 바라보는 충혈된 두 눈에 가득 담긴 것은 희열 바로 그것이었다. 자기 예감이 적중된 것을 누구한테나 자랑하고 싶어 어쩔 줄 모르는 기색이 역력했다.⁵⁷⁾

- 「장마」

위의 예문은 동네 구장이 찾아와 아들의 전사소식을 전하자 자신의 불길한 꿈이 이번에도 맞아 떨어졌음을 가족들에게 주지시키면서, 꿈의 예언에 냉담한 반응을 보인 식구들을 나무라는 광경이다. 외할머니는 아들의 죽음에 목놓아 우는 대신 자신의 적중률 높은 꿈에 대해 식구들의 과거 냉담했던 반응에 신경을 쓰며 서운해 하고 있는 것이다. 노모의 이 반응은 죽음의 비극성을 더욱 제시하며 상처를 극화시키는 효과를 보인다. 즉 ‘봐라, 죽었지! 내말 맞지!’ 라는 울부짖음이 내면에 함축되어 있어 비극성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역설적인 묘사는 죽음의 공포에 억눌린 노모의 심리와 죽음의 아이러니를 드러낸다. 죽음을 별것 아닌 것인 양 희열의 표정을 짓는 모습은 죽음의 두려움을 심정적으로 거부하고 있음을 독자에게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가는 이 대목에서 전쟁의 비극적 현실을 각인시키고 있는 것이다.

56) 인간들이 자신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어치구니 없으며 변호할 여지가 없는 죽음에 대한 거부 때문이라는 논리는 ‘죽음의 아이러니’로 설명할 수 있다. D.C.Mueck, 앞의 책, p72.

57) 윤흥길, 앞의 책, p27.

(2) 말의 아이러니

말의 아이러니는 아이러니스트가 말이나 다른매개를 통하여 무엇인가를 가장 하거나, 아닌 것을 그런 척하거나, 그런 것을 아닌 척 함으로써 형성되는 아이러니를 말한다. 윤흥길 작품에서는 이러한 ‘말의 아이러니’가 드러나고 있다.

「霧堤」는 실향민의 아픔을 그린 소설이다. 「霧堤」의 조현봉은 유능한 문선공(文選工)으로 교정쇄에 ‘무제’라는 단어를 습관적으로 집어넣는 괴벽 때문에 봉무제라고 불린다. 이때 ‘무제’란 ‘배 위에서 보면 마치 육지처럼 보이는 먼 바다의 안개’를 의미하는 말로 바다의 신기루 같은 현상을 의미한다.

이처럼 봉무제씨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완벽한 문선을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보기엔 분명히 고의적인 행위라고 혐의를 받아 마땅한 실수를 저지름으로써 번번이 자기 자신을 우스꽝스런 괴짜의 의자에 앉혀 놓곤 했다.

그는 자기가 맡은 저서의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될 만한 몇 개의 단어를 용케도 골라 그것을 모조리 무제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었다. 58)

- 「霧堤」

무제를 향한 위와 같은 봉무제의 집념은 그가 연고자가 한 명도 없는 삼팔파라지라는 데서 이해될 수 있다. 아마 그에게 ‘무제’란 북에 두고 온 가족과 고향일 것이다. 그는 외롭기 때문에 재수생들에게 매일 음식을 사 먹이고, 주위의 장소에도 불구하고 무제의 허망한 소망을 버리지 못한다. 결국 그는 어떤 아이가 아빠에게 사 달라고 조르던 약기를 대신 사 주고 그 아빠에게 퇴짜맞는 날, 방안에 연탄불을 피워 자살하고 만다. 따라서 그의 자살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58) 윤흥길, 앞의 책, p 302.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여 선택한 극단적인 행위인 셈이다. 하지만 여기서 그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적인 죽음이 아니라 분단된 민족의 비극으로 해석된다.

또 한 명의 실향민인 '나'의 고모부는 자수 간첩으로 이북에 있는 본처와 아들 승곤이를 잊지 못해 폐인이 된 사람이다. 그는 남쪽에서 결혼한 아내와 그 사이에 낳은 아들 승필이를 북에 두고 온 본처와 승곤이에 비교하고 학대하다가, 결국 아내는 도망가 버리고 승필이에게 오히려 구타를 당하는 신세로 전락한다. 난폭한 아들에게 늘 얻어터지면서 고모부는 과거 승필이에 대한 미안함을 “이놈아, 노상 죄없는 얼굴만 때리지 말고 다른 데도 좀 돌아가며 때려라. 지난번에 맞은 자리가 아직 풀리지도 않았는데 또 거기만 때리면 이 애비는 어찌란 말이냐, 이놈아!” 라는 식으로 반응하며 자기학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승곤이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고 절규를 한다.

우리 그 셋째녀석 이름을 어떻게든 떠올려 보려고 밤새도록 방바닥에다 대가리를 쥘어보고 머리털을 쥐어뜯어봐도 끝끝내 알아낼 도리가 없어. 날은 훤히 밝아 오는데, 날이 다 새기 전에 그녀석 이름을 기어코 생각해낼 작정이었는데 어디다 붙들어맨 것같이 이놈이, 이 미련헌 몸의 대가리가 당최 꿈쩍도 허질 않아.⁵⁹⁾

- 「霧堤」

이처럼 봉무제와 고모부는 북에 두고 온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서 헤어나지 못하여, 현실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뿌리뽑힌 삶을 살아가는 실향민의 비극적인 인생을 보여준다.

상황의 암울함과 현실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삶의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

59) 윤홍길, 앞의 책, p312.

는 「무제」에서도 아이러니 기법을 읽어낼 수 있다.

고모부의 편지내용에 약간의 변화가 보였다. 자신의 여생을 의탁할 사람으로 꼭 나만을 지목하지는 않고, 정 무엇하다면 서울엔 양로원도 많다니까 그곳에라도 들어갈 수 있게 어떻게 손을 써 줄 수 없겠느냐는 뜻이었다.⁶⁰⁾

의지할 곳 없는 실향민 고모부는 화자에게 노후를 의탁하려고 사정하는 투의 편지를 보낸다. 표면적 진술은 양로원 소개를 부탁하는 것이지만, '정 무엇하다면'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는 '너에게 가서 살고 싶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은근히 속 들여다보이는 노인의 마음에 아이러니가 성립하고 있다.

「양」은 6.25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전쟁의 비극보다는 전쟁을 통해 드러나는 어른들의 비정함을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다. 「양」의 바보 윤봉이는 네 살짜리 지천꾸러기로만 자라온 아이이다. 이렇게 모자란 윤봉이가 인민군 병사에게 인민군가를 배우면서부터 마을의 명물로 등장하게 된다. 아주 내놓은 바보로 거들떠도 안 보던 사람들이 윤봉이에게 인민군가를 부르게 하고 박수를 아끼지 않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윤봉이를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어른들의 비열한 저의에서 나온 행동이다.

윤봉이는 한 마리의 꿈이었다. 꿈이 되어가는 윤봉이를 슬퍼하는 사람은 아버지 혼자였다. 아버지는 슬픔을 넘어 분개하고 있었다. 동네 사람들의 극성 뒤에 감추어진 불순한 저의를 개탄하고 있었다. 철부지 어린애를 방패막이로 삼아 자기네들이 인민군을 환영하고 공산당에 적극 동조한다는 사실을 은근히 드러내는 데 이용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⁶¹⁾

- 「양」

60) 윤흥길, 앞의 책,p314.

그러므로 수복이 되어 인민군이 쫓겨났을 때, 마을 사람들은 바보 윤봉이로 통하던 당시처럼 윤봉이를 거들떠도 보지 않는다. 그렇게 뒤바뀐 상황을 알지 못하는 윤봉이는 지난날의 명성을 되찾으려고 인민군가를 부르다 홍역으로 죽어간다. 물론 이 작품의 '나'는 「황혼의 집」이나 「장마」의 '나'처럼 그렇게 순진한 소년은 아니다. 그러나 두 작품에서와 마찬가지로 '나'는 죽음을 목격하게 된다. 또한 윤봉이가 죽은 줄도 모르고 업고만 있었던 '나'에게 윤봉이를 죽였다고 비난하는 어머니의 말은 억울한 누명이고 충격이다.

“그 웬수너르 것 아직도 안 돼졌다냐?”

윤봉이를 두고 하는 말이었다. 외출했다 돌아오면 어머니는 늘 이런 식으로 막내의 안부를 묻곤 했다.⁶²⁾

홍역을 앓고 있는 막내 윤봉이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것처럼, '웬수같은 자식, 아직도 죽지 않았느냐'며 묻고 있지만 어머니의 진심은 아니다. 이는 「양」 결말 부분에 윤봉이의 죽음을 보고 밤을 밝혀가며 서러워하는 데서 알 수 있다. 윤봉이 때문에 가정이 어려움에 처해있고 시련이 너무 크기에 아픔을 표현하는 데 있어 죽으라고 말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빨리 죽으라고 말하는 것은 어법적 차원일 뿐이다. 사랑하면서도 웬수라고 부르는 것은 말의 아이러니이다. 작가는 이 아이러니를 통해 역사적 상황이 모성애를 시험할 수는 있지만, 모성애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61) 윤흥길, 앞의 책, p24.

62) 윤흥길, 앞의 책, p30.

아버지의 호통소리에 명선이는 비죽비죽 울기 시작했다. 우는 명선이를 아버지는 또 부드러운 말로 달래기 시작했다.

“말은 안했어도 너를 친자식 진배없이 생각혀왔다. 너 같은 어린 것이 그런 물건 갖고 있으면 털 좋은 법이다.”

「기억속의 들꽃」에서는 어른세계의 간계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말의 아이러니가 나타난다. 명선이한테서 금반지를 빼앗으려고 협박과 회유를 번갈아 사용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간사하고 가증스럽다. ‘말은 안했어도 너를 친자식 진배없이 생각해 왔다.’는 아버지의 표면적 진술은 ‘나는 황금 때문에 너를 좋아한다’는 이면적 의미를 갖기 때문에 아버지의 위선과 간사함이 폭로되는 것이다.

(3) 순진성의 아이러니

「황혼의 집」에는 어리석은 자들의 신빙성 없는 서술에 의한 순진성의 아이러니가 두드러진다. 순진성의 아이러니는 아이러니스트인 작가가 위선이나 모순을 폭로하기 위하여 지적으로 열등하거나 순진한 자를 등장시켜 그로 하여금 그 자신도 의미를 충분히 깨닫지 못하는 질문을 하게 하거나 의견을 말하게 함으로써 빚어지는 아이러니다. 순진성의 아이러니가 갖는 유효성은 그것이 위선이나 모순된 상황을 폭로하는 경제적인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아무래도 좀 심상찮은 기미를 채고 아낙네들은 차츰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경주를 붙잡고 웬일이냐고 묻는 것이었다. 입을 꼭 다물고만 있는 경주 앞에 먹음직스런 한 접시의 송편이 미끼로 던져졌다. 경주가 망설인 시간은 극히 짧았다. 계집에는 하치 얇은 유혹에 쉽게 손을 들었다. 궁금증을 푼 아낙네들은 의당 그렇게 되었어야 옳은 그 일을 그때까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자신들의 불찰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기 시작했다. 진작부터 그럴 줄 알

왔다느니, 그년이 그에 얼굴값을 했다느니, 하고 집을 나간 여자를 재판하는 동안 계집애는 집안의 비밀과 맛바꾼 차진 송편을 걸신 들린 듯 더듬더듬 집어먹고 있었다. 63)

- 「황혼의 집」

위의 인용문은 자기 집안의 불행에 대한 비밀을 단 몇 조각의 송편과 맛바꾼 어린 경주의 순진성을 잘 나타낸다. 행실이 바르지 못한 경주언니 '경옥'이의 가출로 인한 충격 때문에 경주네 집은 추석날 아침에도 식사를 거르고, 동네 아낙네들은 문제의 진상을 알아내려고 경주에게 송편을 미끼로 던진다. 어리고 무지한 경주는 결국 실토를 하고 송편을 더듬더듬 집어먹는 것이다. 이렇듯 무지하고 순진한 경주의 모습을 통해 작가는 수다스러운 어른들의 간계함을 드러내고자 한다.

다음 인용문은 경주가 '나'에게 또 큰언니 죽음을 이야기하는 장면이다. 아이들의 순진성과 단순성, 죽음에 대한 무지를 알 수 있으며 동시에 그 무지를 통하여 아이러니컬한 상황을 엿볼 수 있다.

계집애는 내 팔꿈치를 꼬집으며 킁킁 웃어댔다. 그 얘기를 잠자코 들어주는 일이 내게는 굉장한 고역이었다. 어찌자고 이 애는 만날 죽은 제 언니의 얘기만 지껄이는 것일까. 언짢은 그 얘기를 이미 여러 차례 들려줘 놓고도 경주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 마치 방금 들어온 소식을 전하기나 하는 투로 종알거리며 혼자서 시시덕거리는 것이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의 몇 밤 동안은 가위눌리는 꿈에 자주 시달리면서 내 머리가 꼭 있어야 할 자리에 탈없이 붙어 있는가를 손으로 만져 확인해 봐야만 했다. 사람이 스스로 제 숨통을 조른다는 건 당시의 나로서는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질긴 꼬나풀이 딱 졸라맬때 경주네 언니의 목은 얼마나 아팠을까. 나는 누구에게나, 제발 부

63) 윤홍길, 앞의 책, p35.

드러온 끈을 사용하라고 충고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64)

- 「황혼의 집」

어린 아이의 순진성, 단순성, 죽음에의 무지 등을 통하여 아이러니컬한 상황을 연출하는 이 글은 제발 부드러운 끈을 사용하라고 충고까지 해주고 싶어하는 아이의 시각을 통하여 아이러니를 깨닫게 된다.

「장마」는 6.25로 인한 동족간의 갈등과 그 갈등을 극복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나’의 집에는 국군에 입대한 아들을 가진 외할머니와 빨갱이가 되어 쫓겨다니는 아들을 둔 할머니가 함께 살고 있다. 이러한 인물 설정은 이념의 차이로 인해 들로 나뉘어 싸우고 있는 6.25의 성격을 단적으로 반영한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우익 활동을 한 ‘나’의 외삼촌과 부역 행위를 한 삼촌간의 이념적 대립은 나타나 있지 않으며, 오히려 두 사람은 사이가 괜찮은 편이다. 외할머니가 외삼촌의 전사 통지서를 받고 빨갱이를 저주하면서 빨갱이 아들을 둔 할머니와의 불화가 시작되지만, 이들의 대립 역시 이념적 대립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의 입장을 옹호하며 내보이는 감정적인 대립이다. 외할머니와 이모를, 경우에 따라서는 어머니까지도 내보낼 것을 아버지한테서 다짐받을 정도로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갈등은 첨예화되는데, 이러한 갈등은 두 할머니가 토속적 샤머니즘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해소된다. 할머니는 아들의 소식을 궁금해하다가 소경 점쟁이로부터 아무 날 아무 시에 아들이 돌아온다는 신탁을 받게 된다. 그러나 소경 점쟁이가 예언했던 날 아들은 돌아오지 않고 구렁이가 집안으로 들어온다. 이때 할머니는 구렁이를 보는 순간 기절해 버리고, 외할머니는 구렁이를 죽은 ‘나’의 삼촌으로 생각하여 극진하게 대접한다. 구렁이가 나타났을 때의

64) 윤흥길, 앞의 글,p56.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행동은 구렁이를 죽은 사람의 화신이라고 믿는 공통된 신앙의 일치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화해가 가능하게 된다.

외할머니로서는 벌써 오래 전에 할머니하고 한대래끼 단단히 별인 이후로 처음 있는 큰방 출입이었다.

“고맙소.”

정기가 꺼진 우묵한 눈을 치켜 간신히 외할머니를 올려다보면서 할머니는 목이 짹 떤었다.

“사분도 별시런 말씀은 다……”

외할머니도 말끝을 마무리지 못했다.

“야한티서 이 얘기는 다 들었소. 내가 당허야 혈일을 사분이 대신 맡었구랴. 그 험헌 일을 다 치르노라고 얼마나 수고시켰으꼬.”

“인자는 다 지나간 일이닝게 그런 말씀 고만두시고 어서어서 몸이나 잘 추시리기라우.” 65)

- 「장마」

윤홍길의 동족상잔의 한을 극복하는 방법은 토속적 인정(人情),전래의 전통의식을 통해서 본래의 동질성을 확인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⁶⁶⁾고 밝힌 것처럼, 이 작품에서는 이념의 갈등을 토속적 샤머니즘으로 극복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슬픔과 한을 승화시켜 다른 이의 고통을 어루만져 줄 줄 아는 외할머니의 모습은 분단 상황에 처한 우리 민족이 어떻게 화해에 이르러야 할 것인가를 알려 준다.⁶⁷⁾

그러나 샤머니즘을 통한 민족 동질성의 회복과 화해를 제시하는 이 작품에

65) 윤홍길, 앞의 책,p65.

66) 김승희, 「土俗의 핏줄에서 찾는 和音의 世界」, 『文學思想』 1979.8.p410.

67) 최유찬, 『리얼리즘 이론과 실제 비평』,두리출판사, 1992.p227.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이러한 해결 방법이 비현실적이고 탈역사적이며 환상적인 성향을 띤다⁶⁸⁾는 지적에서부터, 두 할머니의 화해는 아무런 해결도 아닌 일시적인 눈가림으로 이것은 이데올로기와 맞서 싸우지 않고 도피하는 방식의 일종⁶⁹⁾이라는 혹평까지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족상잔의 6.25를 한 집안 내의 좌익과 우익의 대치로 설정하여, 이념을 초월한 동질성의 회복을 통한 분단 극복의 의지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평가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작품에도 「황혼의 집」과 마찬가지로 성장소설적 요소들이 내재되어 있다. ‘나’는 어린 나이에 외삼촌, 삼촌, 할머니의 죽음을 목격하게 된다. 그리고 초코렛을 미끼로 ‘나’에게서 삼촌이 몰래 집에 다녀간 사실을 알아낸 맥고자의 사내로부터 ‘나’는 배신감을 느낀다. 결국 ‘나’의 밑고로 아버지는 일주일 동안 옥고를 치루고 ‘나’는 죄의식을 갖게 된다. 이처럼 ‘나’는 전쟁 속에서 잔인하고 교활한 어른의 세계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장마」에서도 순진성의 아이러니는 드러난다.

“너 이 녀석 우는 구나. 못난 녀석 같으니라구. 애, 꼬마야, 이제라도 늦진 않아. 잘 생각해봐. 삼촌이 집에 다녀갔었지? 그게 언제지?”

어른의 비상한 수완을 나로서는 도저히 당해낼 재간이 없다는 생각이 든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리고 이 아저씨는 진짜로 삼촌의 친구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막 시작할 때의 첫마디가 가장 힘들었다. 그러나 일단 얘기를 꺼낸 다음부터는 연자세에 감긴 실처럼 전 날 밤의 기억들이 술술 풀려나왔다.⁷⁰⁾

68) 이우용, 『문학의 힘과 비평의 깊이』, 온누리, 1991.p26.

문학과 사회 연구회 엮음, 『문학과 현실의 삶』, 국학자료원, 1999.p222.

69) 김윤식, 『우리 소설과의 만남』, 민음사, 1986.p308.

70) 윤흥길, 앞의 책, p55.

인민군 친삼촌의 행방을 찾으려는 우익진영 정보원의 간계한 초콜릿 유혹과 속임수에 어린 화자가 갈등하다가 결국 실토하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는 위 예문은 아이의 순진성과 무지에 기초한 설정으로 아이러니를 구성하고 있다. 어린 화자의 순진함이 무참하게 짓밟히는 장면을 제시함으로써, 모순된 전쟁의 현실과 어른의 간계함을 꼬집는 작가의식을 보여준다.

선천적으로 인지발달이 더딘 지진아이자 천덕꾸러기인 윤봉이를 통하여 분단과 전쟁의 상황을 그려낸 「양」은 순진성의 아이러니가 두드러진다. 윤봉이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저지르는 행위와 그 순진성을 이용하는 어른들의 위선 사이에서 아이러니는 빛어진다.

호랑이 사건 이후부터 윤봉이에겐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연설 흥내만이 아니라 군가를 부르는 데도 그 특이한 재주를 발휘하여 잠깐 사이에 우리 마을의 명물로 등장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마을 어디를 가나 윤봉이의 인기가 대단한 것에 가족들인 우리까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주 내놓은 바로로 이제까지 거들떠도 안보던 사람들이 우리 윤봉이를 구경하기 위해 일부러 마을 정자 마당에 들르는 것이었고 길을 가다가도 꼭꼭 불러세우곤 했다.⁷¹⁾

위 인용문은 인민군이 점령하게 된 이후 윤봉이와 마을 사람들의 태도를 묘사한 부분이다. 순진한 윤봉이는 인민군의 칭찬에 솔깃하여 앵무새처럼 인민군가를 부르고, 동네 사람들은 평소 바보라고 거들떠보지도 않던 윤봉이에게 관심을 보이면서 칭찬한다. 동네 사람들은 철부지 어린애를 방패막이로 삼아 자기네들이 인민군을 환영하고 동조한다는 사실을 은근히 드러내는 데 이용하려는 것이다.

71) 윤희길, 앞의 책, p65.

표면적 진술은 어리석고 순진한 윤봉이의 행위와 동네 사람들의 칭찬이지만, 이면적 의미는 결코 칭찬이 아닐 뿐더러 순진한 윤봉이를 이용하는 동네 사람들의 위선과 비접함을 꼬집고 있어 순진성의 아이러니가 빛어진다.

「기억 속의 들꽃」은 어른세계의 위선과 탐욕, 간사함을 꼬집는 부분이 많다.

누나와 나는 피난민들을 마냥 부러워하고 있었다. 세상의 저쪽 끝에서 와서 다른 저쪽 끝까지 가려는 사람들 같았다. 무거운 짐을 들고 불편한 몸을 이끌며 길을 떠나는 그들의 모습이 오히려 우리들 눈에는 새의 깃털만큼이나 가벼워 보였다. 우리는 왜 마을에 붙박혀 살아야 하는 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도 피난을 떠나자고 아버지한테 조르기로 작정했다.⁷²⁾

위 인용문에 나타난 순진한 화자와 누나는 사람들이 피난 가는 모습이 부러워 우리도 피난을 떠나자고 아버지한테 조르기로 작정한다. 전쟁과 피난이 무엇인지도,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도 모르는 유소년 화자의 서술은 독자들을 실소(失笑)하게 하며 그 순수성과 순진성을 공감하게도 한다. 또한 순진함과 전쟁을 대비시킴으로써 전쟁의 비극성을 고조시키려는 작가의 의도가 돋보인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상황의 아이러니, 말의 아이러니, 순진성의 아이러니는 민족의 비극성과 현실의 한계에 대해 극적으로 묘사하면서 소설의 주제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장치가 되고 있다. 즉, 작품 안에서 역설적인 표현과 무지한 화자의 서술 등으로 나타나는 아이러니는 분단과 전쟁의 상황을 보다 비극적으로 제시하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

72) 윤홍길, 앞의 책, p66.

IV. 윤흥길 분단소설의 특징

이제 앞에서 살펴보았던 분단 인식들을 토대로 분단극복에 대한 전망은 어떠한지 작품에 나타난 분단극복의 양상과 분단소설의 특징을 다루고자 한다. 그런데 분단극복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으며, 유소년 화자 시점으로 쓴 작품들은 성장소설적 성격도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여 특징적 양상을 ‘기억의 재생과 자기 치유’ 및 ‘공동체 의식의 회복’이라는 항목으로 설정하여 살펴보하고자 한다.

1. 기억의 재생과 자기 치유

유소년 시절, 분단과 전쟁의 비극을 접했던 윤흥길은 그의 기억에 깊이 각인된 원체험을 자기구원의 글쓰기라는 방법으로 드러내고 있다. 유년의 기억 속에 얼룩진 살육과 상처로 남아있는 전쟁의 체험은 작가에게 숙명에 가까운 해명 대상으로 작용했을 것이며 이는 분단소설로 형상화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성장기와 관련된 분단소설의 성립은 전쟁의 외상으로부터 벗어나 분단 문제에 대한 탈이념적인 인식 혹은 소설적 자아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작가는 ‘유년의 관찰자’와 ‘성년의 경험자’를 통하여 전쟁의 폭력과 상처를 작품 속에서 제시한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회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상처와 비극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종의 ‘자기 치유’이자 민족적 치유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비극의 기억과 재생은 이렇듯 민족적 치유의 일면으로 분단 극복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방법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자기 치유'의 면모는 인식의 주체가 인식의 방향을 자아의 내면의식으로 집중시켜 자신에게 가해진 분단의 의미들을 탐구하는 형태의 작품들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면모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양상은 성장체험과 어른 세계의 폭력적 속성을 서술한 유년 화자 작품군과, 자신의 신원 찾기와 가족사에 드리워진 비극의 의미를 간취하고 역사적 지평을 획득한 성인 화자 작품군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므로 기억의 재생과 상처의 치유는 성장소설⁷³⁾의 전유물은 아니다. 그 예를 윤홍길의 「무지개는 언제 뜨는가」에서도 찾을 수 있다.

「무지개는 언제 뜨는가」는 성인화자의 귀향을 매개로 “성장기를 객관화시켜 비극을 탈이념적 차원에서 제시함으로써, 개인적 체험을 통해 분단금기를 우회하면서 비극의 해명을 역사적 인식지평으로 확산시키는 인식론적 행보⁷⁴⁾를 보인다.

“저는 합작품이래, 빨갱이가 낳은 자식을 그 빨갱이한테 불행을 당한 여자가 주워다 길렀으니까.....”

그렇게 한참을 바라보고만 있는 그 사이에 나는 그가 전혀 낯선 얼굴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전에 어디선가 많이 보았던 얼굴임을, 다시 말해서 절반은 우리 당숙을 닮고 나머지 절반은 우리 당숙모를 닮은 듯한 생김새를 차차로 깨닫게 되었다.⁷⁵⁾

앞의 인용문은 냉전적 사고를 극복한 동근의 인식론적 행보를, 아래의 인용문

73) 성장소설이란 “유년기에서 소년기를 거쳐 성인의 세계로 입문하는 한 인물이 겪는 내면적 갈등과 정신적 성장,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에 대한 각성의 과정을 주로 담고 있는 작품들”을 지칭한다. 한용환 『소설학 사전』, 이우, 1986.

74) 유임하, 『분단현실과 서사적 상상력』, 태학사, 1998. p158

75) 윤홍길, 앞의 책, p90.

은 떨떠름한 표정을 거두고 동근을 피붙이로 수용하는 화자의 인식론적 행보를 각각 보여준다. 분단의 상처를 극복하고 건강한 화해가능성을 제시한 이 작품은 성인화자의 인식론적 각성과 그로 인한 상처의 치유를 다루고 있다고 하겠다.

「황혼의 집」의 경우, 나의 성장과 각성, 그리고 상처의 치유가 나타나고 있으며, 소년 경주에게는 악의 체험과 성장은 나타나지만 상처의 치유는 보이지 않는다. 나의 경우, “나는 어머니의 성화에 못이겨 오래도록 사사건건 말썽을 부려 온 왼쪽 충치를 뽑아버렸고 그것을 지붕 위에 던졌다”는 표현에서는 미숙한 상태의 화자가 발치 행위를 통해 갈등과 미숙함을 극복하고 각성하여 새로운 세계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과 그로 인해 상처가 치유되었음을 암시의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경주의 경우, 어른세계의 악과 폭력에 물들어 개미를 태워 죽이는 등의 잔혹한 행위를 일삼고 있고 나도 부화뇌동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악의 체험으로서 성장적 범주이다. 또한 실성한 어머니를 괴롭히고 놀리는 사내 아이에게 아파서 누워 있던 몸을 벌떡 일으켜 달려들어서 할퀴고 때리고 물어뜯어 이겨내는 경주의 돌발적인 행동은 변화된 의식의 세계를 보여주는 성숙화의 과정이라 할 것이다. 76)

한편 「장마」는 결말부분 “나도 마음속으로 할머니의 모든 걸 용서했다.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에서는 자아의 성장, 그리고 상처치유의 징후를 읽을 수 있다.

또한 「기억 속의 들꽃」은 명선의 죽음을 목격한 어린 화자가 훗날 용기를 내어 전에는 엄두도 낼 수 없었던 부서진 철교를 무사히 건널 수 있었다는 것으로 성장했음을 암시한다.

76) 조건상, 「한국소설에서의 분단인식의 형상화 양상」, 『한국 현대소설가론』. 태학사, 2001. p242.

「양」에서도 '자기 치유'의 모습이 나타난다.

나는 속으로 무엇이 울컥 치밀어오름을 느꼈다. 심한 욕지기와 함께 나도 모른 사이에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입에 손가락을 넣어 먹은 걸 꾸역꾸역 토해내면서 나는 드디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중략) 동생을 죽였다는 누명이 아무래도 분하고 억울해서 나는 불이 다 사그라져 다시 어둠 속에 온전히 휩싸인 마을 뒷산을 앞에 두고 소리내어 울었다.⁷⁷⁾

속으로 울컥 치밀어 오르게 만드는 어떤 의식과 토약질하는 행위는 성장의 징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제」에서는 복讎에 두고 온 아들의 이름마저 기억나지 않는다고 괴로워하며 몸부림치는 고모부의 모습을 보면서 여생을 책임질 결심에 이르는 주인공의 현실인식 과정이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는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는 한 방법을 암시의 형태로 제시한 것이다. 화자는 「무제」에 나타난 실향민의 쓸쓸한 초상을 통해 이산의 아픔과 가족공동체의 붕괴를 재생시키며, 그들의 고통을 포용함으로써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윤흥길 중단편 분단소설은 전쟁자체의 역사사회적 의미나 이데올로기적 대립의 비극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인간성을 상해하는 불화 세계로서의 전쟁의 폭력성과 참상, 고난에 더 주목하고, 전쟁이 주는 고통과 성장에 관한 개인적 의미와 더불어 분단을 극복, 화합으로 나아가게 하는 민족적 의미를 추구하고 있다.

2. 공동체 의식의 회복

77) 윤흥길, 앞의 책, p149.

소설은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구현하는 서사장르이다. 삶의 총체성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소설은 나름대로 형식을 만들어 내는데 그 형식은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설의 형상화 과정에서 드러나게 된다. 또 주인공은 삶의 총체성을 통찰하여 자신의 이상 세계를 추구해 가는 자가 된다. 따라서 소설 형식이 규정하는 의도가 주인공의 심리로써 객관화되기 때문에 소설에서 긍정적으로 그려지는 세계가 주인공이 찾아가는 삶의 총체성이고 작가를 통해 당대가 추구하고 있는 지향점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⁷⁸⁾ 여기서는 주인공이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각을 통해 작품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시대가 어떤 모습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황혼의 집」에서 작품의 갈등을 일으킨 원인이 서술된 표현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울음소리를 듣고 어머니는 혀를 찼다. 아낙네들로부터 우는 이유를 들 때도 어머니는 혀를 찼었다. 경주네와 관계되는 모든 일에 것처럼 혀를 차는 것이었다. 쫓쫓……. 들은 얘기에 의하면, 할멈은 산(山)사람이 되어 돌아오지 않는 아들 때문에 그렇게 울었고 어머니의 외아들에 대한 분별없는 사랑이 자식을 빨갱이로 만들었다. 또한 큰딸은 그놈의 울음소리 때문에 어머니를 죽도록 미워했고, 그녀가 목을 매단 것은 동생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런 단편적인 이야기들 사이에 서로 어떤 맥락과 당위성이 개재해있는지 그 점을 바로 깨닫지 못했으나, 경주네 큰언니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에

78) 게오르크 루카치, 반성완 역, 『소설의 이론』, 심설당, 1997, pp76~77 요약

루카치는 소설의 주인공과 사회와의 관계를 이상적인 세계를 찾아가는 탐색자로 설정하고 있다. 또 이러한 양식을 잘 표현하는 장르로 성장소설의 전범이 되는 교양소설을 들고 있다. 주인공들을 통해 그려지는 긍정적인 세계가 작가가 제시하는 이상적인 세계의 모델이라는 이론을 전제한다면, 작품을 통해 드러나는 전통적인 공동체 의식은 분단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윤흥길 문학이 제시하는 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

대한 설명을 나는 펍 의미심장하게 들었다. 큰 딸은 산사람이 된 동생에게 자수의 길을 터주려고 힘이 될만한 사람을 찾아다니다가 그만 어떤 험잡꾼한테 걸려 속옷을 안 입은 채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왔다. 그리고는 다음날 새벽에 화덕 위에 올라섰다.⁷⁹⁾

위 인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주네 집의 불행은 한 사건에서 또 다른 사건으로 꼬리를 무는 연속선상에 위치한다. 연속된 고리를 정리하면 산사람이 된 아들, 아들에게 자수의 길을 터주려다 험잡꾼에게 걸린 큰딸, 위의 예문에서 직접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불행한 가족관계를 견디지 못하고 가출한 작은딸, 그리고 자식들의 죽음으로 점점 미쳐 가는 경주어머니가 인과적 관계 속에 나타나 있다. 얼핏 불행의 시작은 어머니에게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유는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분별없는 사랑이 아들을 산사람으로 만드는 것’에서 그들의 불행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분별없는 사랑은 흔히 남편을 잃은 한국의 여성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전쟁이나 험잡꾼 등 외부적 요소가 끊임없이 경주네 집의 불행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불행의 원인은 ‘경주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분별없는 사랑’ 이라기보다 그들을 둘러싼 사회에서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사회적 원인은 가족 공동체를 하나씩 해체시키는 작용을 하고 결과적으로 모든 개인을 불행하게 만든다. 그것은 “개인과 대립된 현실이 갖는 중요한 성격은 모든 인간을 사회의 한 기능으로 전락시켜 버리고 또한 기능으로 전락된 개인이 갈수록 불행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양상”⁸⁰⁾을 보이기 때문이다. 즉 개인은 사회구조 내에서 삶이 결정되고, 그 사회를 구성하는 작은 단위로 기능하기 때문에 개인과 사회가 갈등관계에 처하게 될 때

79) 윤홍길, 앞의 책, p200.

80) 정명교, 「가족·개인·도구」, 『세계의 문학』, 1979-여름, p222.

개인의 불행은 필연적인 결과가 된다.

이러한 과정을 작품이 지향하는 공동체 의식과 관련시켜 생각할 때 주인공이 지니고 있는 특성이 발견될 수 있다. 그것은 경주의 어머니가 지니고 있는 모성애와 숙명론적 세계관이다. 경주의 어머니에게서 보이는 이 두 가지 요소는 개인들의 환경을 크게 변화시키거나 작품의 흐름을 바꾸지는 못한다. 그러나 혈연중심으로 한 가족은 공동의 운명체를 지닌다는 점에서 이것은 주목할 만하다. 경주어머니에게서 나타나는 혈연중심의 모성애나 숙명론적 세계관 뿐만 아니라 이들을 바라보는 주위 사람들의 시선에서 또한 마을 전체의 공동체적 삶의 형식을 볼 수 있다. 위의 인용문 가운데 앞의 세 문장에서 보여지는 어머니의 허차는 모습이나 이웃들의 동정과 연민에서 한국의 전통적 세계관이 가족 뿐만 아니라 이웃과 하나가 되는 공동체의식을 기본적인 정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황혼의 집」은 전쟁으로 인한 가족의 해체로 구체화되는 비극을 모성애와 숙명론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의식을 통해 극복하려 하고 있다.

다음 작품 「장마」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장마」에서 역시 비극을 극복해 가는 과정이 전통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그려지는데 그것은 빨치산인 삼촌의 귀가를 통해 해체된 가족을 다시 맞이하려는 할머니의 태도에서 잘 나타난다.

어머니를 시켜 장롱 속에서 꺼낸 비장의 옷감으로 한복을 마르게 했다. 집 안에서 입기로는 한복만큼 의젓하고 편한 옷이 없다는 얘기였다. 삼촌이 전에 즐겨 먹었다는 호박전을, 그렇게 터무니없이 많이 장만해 놓으면 이틀 후에는 몽당 쉬어터져 한 개도 못 먹게 된다는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 광주리나 되게 부치게 했다. 손수 고사리 나물을 무치면서, 세상이 하도 험하니까 이젠 나물마저 쓸만한 게 별로 없더라고 억지스런 푸념을 늘어놓기도 했다.

상하기 쉬운 음식은 소금에 절이고 콩기름으로 튀겨 단단히 갈무리해 두었다. 준비는 대강 끝난 셈이었다. 없는 집 시골 살림으로 그만한 준비라면 웬만한 잔치쯤은 치르고도 남을 것이었다.⁸¹⁾

위의 인용문을 통해 나타나는 한국의 전통적 세계관의 특성은 세 가지로 유추될 수 있다. 첫째, 이데올로기를 위해 빨치산이 된 삼촌을 맞이하는 준비가 가장 토속적인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 보이는 한복, 호박전, 고사리 등의 나물 뿐만 아니라 삼촌을 위해 달아두는 장명등이나 샷갓 등 작품 곳곳에서 등장하는 소품들은 화자와 화자를 둘러싼 주인공들이 생활 속에서 주로 사용하는 물건들이다. “할머니가 사용하는 이 소품들은 각각 서구적인 외래 의상, 형사가 ‘나’를 유혹할 때 이용한 초콜릿, 외삼촌의 전사소식을 알려온 회중 전등과 군용 방수포 등 외래적인 것과 대비되면서 전통적인 삶의 양식⁸²⁾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즉 작가는 이데올로기로 인한 비극을 그에 상응하는 논리를 통해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한국인의 전통적이고 보편적인 삶의 양식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외래적인 소재는 부정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독자에게 암암리에 환기시키고 있다.

둘째, 전통적인 혈연중심의 무조건적이고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일상적 차원에서 기대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철저한 정성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위에서 할머니가 음식을 장만하는 억척스런 모습이나 삼촌을 맞이하기 위하여 가족들을 다그치는 정도는 ‘아버지는 부황이 든 사람처럼 얼굴이 누렇게 떠 부석 부석 했고, 어머니는 숫제 강마른 대꼬챙이’가 될 지경이었고 심지어 사돈댁인

81) 윤흥길, 앞의 책, p130.

82) 장양수, 「이데올로기 소설」, 『한국의 문제소설』, 집문당, 1994, p225.

외할머니와 이모까지 가세해야 할 지경이었다. 그러다가 급기야 삼촌이 오기로 한 날 장명등이 꺼지자, 어머니와 아버지를 무섭게 닦아 세우고 '정성의 기미가 보일 때까지 광과 장롱의 열쇠를 당신이 직접 맡아 관리하겠다고 선언' 해 버린다. 이것은 윤홍길 문학에서 "희망이 토속신앙에서 그런 것 같은 막연히 의타적인 행운의 기원이 아니라……(중략) 한의 극복을 위해 살풀이굿이나 영탄이 아니라 먼저 적극적인 희망과 정성스러운 준비"⁸³⁾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전통적인 세계관에 의거한 분단 상황의 대안을 단순성이나 우연성에 치우치지 않고 나름대로 철저한 질서에 의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셋째, 이러한 정성을 가능하게 한 것은 할머니들의 신앙체계이다. 할머니는 소경점쟁이에게서 삼촌이 온다는 '아무날 아무시'를 신탁으로 듣고 준비한다. 또 「장마」에서 토속 신앙을 가장 체득하고 있는 인물인 외할머니는 외삼촌의 전사소식을 '꿈'을 통해 미리 예견하거나 신비한 신통력을 지니는 등 무속적인 면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그러나 외할머니나 친할머니라는 인물이 보여주는 무속 신앙이 절정을 이루는 것은 삼촌대신 들어온 '구렁이'를 통해 극화되는 부분이다. 「장마」는 죽은 사람의 현신인 구렁이의 무속신앙적인 요소가 매우 강하게 나타나 있어 대부분의 평가가 「장마」를 단순하게 토속적인 소설로만 바라보려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무속 신앙적인 요소에 대하여 면밀한 독서를 통해 작품의 표층과 심층을 두루 살펴본 결과, 주인공들의 신앙체계는 극적인 작품 구성을 위하여 사용된 획기적인 장치일 뿐만 아니라 토속신앙과 민족이라는 측면에서 그 사회의 공동체의식을 공고히 하는 매개적인 역할을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⁸⁴⁾

83) 이보영, 「윤홍길론」, 『현대문학』, 1981.8, p266.

84) 민족종교는 그 민족의 고유성을 보존 전승시키는 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때

무속신앙이 지니는 주인공들의 공동체 결속력은 「무지개는 언제 뜨는가」에서도 나타난다. 그 구체적인 예로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혼불이 목격되는 행위, 밥똥 누는 손자를 위해 닭에게 비는 의식, 그리고 '무당같은 신통력을 지닌' 외할머니의 등장이다. 그런데 「무지개는 언제 뜨는가」에서 무속신앙이 작품 전체에 기여하는 기능은 「장마」보다 한층 약화되어 있다. 오히려 이 작품에서 공동체 의식을 유지하는 요소는 「장마」보다 「황혼의 집」과 유사한 면을 보이고 있다.

「무지개는 언제 뜨는가」에 이르면 가족 공동체와 그 해체 현상은 앞의 두 작품보다 더 극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이 작품은 유난히 가족에 관한 어휘나 가족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는 고유의 풍습이 많이 등장한다. 네 작품 가운데 ○○대조 할아버지, 시숙어른, 당숙모, 재종형제 등과 같은 복잡한 혈연관계에 대한 호칭이나 종중, 시제, 종손, 문충공파와 같은 용어가 네 작품 가운데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또 '나'의 가정도 빨치산으로 입산한 삼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근이의 가족과 달리 좌익의 보복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가문을 중심으로 한 가족관계 때문으로 그려지고 있다. '인근을 통틀어 우리만큼 별쪽한 집안이 드문' 것과 대조적으로 '재석이네(동근에의 형)는 사정이 전혀 달라 양념으로 쓸 만한 친척 하나 없이 어디선지 흘러 들어와서는 차서방이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면서 그럭저럭 살아가'는 처지였다. 이렇듯이 가족 공동체가 삶의 터전을 이루는 사회에서, 동네에서 '삼십리텀이나 떨어진' '가실리로 나가 살다'가 빨치

고유성을 보존 전승하는 것은 그 동질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장양수, 앞의 논문, p230.) 바로 이점이 「장마」가 「황혼의 집」과 다른 결말을 지니게 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황혼의 집」은 개인의 입장에서 비극적 세계관을 그대로 지닌 채 끝나지만 「장마」는 삼촌대신 들어온 구렁이를 통해 인물들이 서로 화해하는 구체적 통로를 제시하고 있다.

산에 의해 가족 전원을 잃고 혈혈단신이 된 ‘나’의 작은 당숙모나 우익에게 가족 전체를 몰살당한 동근은 이단자의 모습을 지니게 된다.⁸⁵⁾ 이 소외된 개인들이 다시 자신들의 삶을 되찾는 경위는 앞의 두 작품에서처럼 한국의 전통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가족 공동체 속에 재진입하는 것이다. 이들이 다시 가족 공동체로 편입하게 되는 매개는 짓먹이 아들을 잃어 ‘젓 둔덕이 하얗게 드러나 툭툭 붙은 대로 붙어서 거지반 가슴 전체가 팽팽한 젓 둔덕’이 되어버린 작은 당숙모가 짓먹이 고아를 향해 지니는 모성애와 원수의 자식을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결정적으로 기능한 그녀의 광신이다. 또 작은 당숙모의 모성애와 광신과 더불어 사법연수생이 된 후, 작은 당숙모를 어머니로 모시고 집안 어른들에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동근의 효성심 또한 소외된 개인을 가족 공동체 속으로 완전하게 편입시키는 한국의 전통적 세계관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세 작품에서 가족 공동체의 해체가 그 테두리 안에 사는 여인들의 토착적 한으로 이어지고 그 한이 다시 한국의 전통적 세계관 안에서 화해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것과 달리 「양」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한국적 한을 다루지 않는다. 그것은 「양」이 위의 세 작품과 달리 보편적인 형태의 득죄와 사회적 정화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작품이 지니는 이러한 보편성은 한국의 전통적 세계관이라는 특수한 형태를 기반으로 하기 보다는 외려 ‘속죄양’과 같은 일반적인 의미의 원시신앙에 가까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

85) 이런 점에서 당숙모의 광신은 삶의 한 극단에 몰려있는 여인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난세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일수록 비정상적인 정신세계를 보이는 인물이나 정신이상자가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것은 타락한 사회일수록 죄인이나 광인이 생겨난다는 골드만의 이론이나 일제시대 이상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 혹은 전쟁을 직접 체험한 손창섭의 인물들이 정신적인 무제를 갖는 이유와 일맥상통한다.

품 「양」은 소설적으로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한국적 풍속이 그대로 노정되어 있다. 아픈 윤봉이를 위해 어머니가 마련하는 ‘가재와 댓잎’을 이용한 민간요법이나 밤늦게까지 어머니를 기다리는 ‘나’를 묘사하는 장면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특히 아픈 윤봉이를 업고 밤마다 어머니를 기다리는 장면은 전래동화의 한 부분을 연상하게 한다.⁸⁶⁾

그런데 이와 같은 샤머니즘을 통한 민족 동질성의 회복과 화해를 제시하는 작품의 귀결방식에 대해 비판도 적지 않다. 이러한 해결 방법이 비현실적이고 탈역사적이며 환상적인 성격을 띤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김윤식은 근대소설의 리얼리즘 이탈현상으로 보고, 자연질서와 화해의 세계 속에 함몰하는 반근대적 사고(샤머니즘적 체질)의 원형⁸⁷⁾으로 간주한다. 그는 무속 신앙의 세계에 무조건적으로 의탁하는 단순한 광신은 비합리적인 반근대적 세계이기 때문에 작품 갈등의 원인이 되는 근대적 가치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산물로 제시한다면 맞지 않는데, ‘장마’가 이러한 세계관 위에 성립되었으므로 소설의 미달형식⁸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들은 그의 분단소설이 사회역사적 환경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결여되어 있으며, 샤머니즘의 비합리적이고도 반근대적인 세계관 위에 성립하므로 소설의 미달형식이라고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 평가들은 몇 가지 점에서 시정을 요한다.

첫째, 윤희길의 분단소설이 사회역사적 환경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배제되어 있다는 식의 발상은, 그의 작품 대부분이 개인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권위적 폭력

86) ‘나’는 잔칫집에 간 어머니를 기다리는 오누이가 나오는 전래동화에서처럼 어머니가 오시는 길을 더듬어가면서 무료함을 달랜다. 이러한 부분은 ‘나’가 느끼는 괴로움을 전통적인 요소를 통해 극복한다는 점에서 주제를 암시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다.

87) 김윤식, 「6.25와 소설의 내적 형식」, 『김윤식 선집 2』, 솔출판, 1996. p390.

88) 김윤식·정호웅, 『한국소설사』, 문학동네, 2000, p 493.

적 집단과 그로 인해 상처받은 개인의 진실을 일관되게 추구하여 소설적 관심을 보였음을 상고해 볼 때 맞지 않다. 따라서 「장마」도 샤머니즘적 요소를 소도구로 사용해서 시골에 아직도 남아있는 전통적 요소를 의도적으로 많이 도입하려 한 것일 뿐, 샤머니즘 자체를 목적적 의식으로 추구했다고 볼 수 없다. 그의 소설 경향이 타락한 세계에서의 진정성 추구이므로, 그 과정에서 분단원인 부분에 대한 구체적 탐색이 언급되지 않을 수 있고 외피가 샤머니즘적 방식을 보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객관적 인식이 배제되어 민화의 세계를 보여 준다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다.

둘째, 윤홍길 소설이 반근대성을 띠므로 소설의 미달형식이라고 보는 견해도 동의할 수 없다. 문학은 삶을 대상으로 하고 삶은 근대적 요소와 반근대적 요소가 어울려 종합적 결과물로 제시된 것⁸⁹⁾임을 상기할 때 맞지 않는 말이다. 만일 근대적 요소에서 제기된 문제니까 근대적 요소로만 풀어야 한다면 역으로 그것은 문학보다는 역사나 사회학에 임무를 맡겨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분단문제에 얽힌 문화적 특수성을 도외시 한 채 미학적 토대를 서구적 원리로만 판단하는 몰이해⁹⁰⁾도 지적될 수 있겠다.

셋째, 분단의 비극이 갖는 역사적 恨은 근원적인 정서의 동질성을 발견할 때 서로를 용서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극복될 수 있으므로 논리를 떠나 정서적 화해에 도달하는 것을 무조건 쓸모없는 '반근대'로 매도하는 것은 당위적·효용적 측면에서도 옳지 않을 것이다.

이렇듯 윤홍길은 우리 민족의 분단을 극복하는 방식으로 토속적 정서와 모성애를 소설 속에 제시하고 있다. 또한 샤머니즘을 분단현실을 깨부수는 구체물로

89) 김지연, 「윤홍길의 초기 성장소설 연구」.충북대 석사논문, 1999. p56.

90) 유임하, 앞의 책, p289.

가 아니라 민족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모성애'와 '토속적인 것' 이 두가지 요소가 화해의 실마리로 작용하고 있음을 볼 때,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형성된 갈등의 골을 메울 수 있는 핵심은 가족과 민족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모성과 토속적 신앙에 뿌리내리고 있는 민족 공통의 정서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V.결 론

이상으로 본고에서는 식민치하의 현실에서 식민치하에 살고 있다는 철저한 의식이 없다면 거기서 벗어날 수 없듯이, 분단시대를 살면서 분단시대에 살고 있다는 의식이 철저하지 못하다면 결코 그 극복의 방향을 찾을 수 없다는 '현실'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여 분단 현실을 다루고 있는 윤홍길 문학 작품에 주목하였다. 특히 윤홍길 분단 소설의 양상과 특성을 통해 드러나는 분단의 극복 양상에 집중하여 연구해보았다. 이는 각 작품에 대한 분리된 연구 경향을 포괄하는 하나의 효과적 방법론으로 분단문학이라는 큰 맥락 속에서의 윤홍길 작품에 나타나는 분단인식의 특징을 살피는 작업이었다.

먼저 II장에서는 예비적 고찰로서 분단문학의 개념과 분단소설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1970년대 분단소설의 경향에서는 1970년대 들어 변화된 분단인식의 변모와 함께, 1970년대 문학의 대표적 경향으로 꼽히는 유년기 전쟁체험의 형상화, 그리고 1970년대 분단의식이 투영된 소설의 경향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1970년대 소설이 보여준 특징적인 경향의 하나는 민족의 분단과 한국전쟁의 비극적인 체험을 소설로 재현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 분단소설이 크게 번성하였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유소년 전쟁체험세대들이 본격적으로 작품활동을 시작하여 전쟁의 비극과 상처 입은 존재들의 모습을 주로 회상의 시점과 증언의 포즈를 통해 구체적으로 그려냈고, 분단의 제 상황을 간접화시키거나 역사적 조망 하에 놓는 방식으로 작품활동을 전개하였음을 언급했다. 그리고 70년대 분단소설의 전개양상은 일상 속에 내재되어 있는 분단의 상흔과 질

곡을 민중의 시각에서 수용하고 넘어서려는 작품군과 분단의 원인을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조망한 작품군, 외세에 의해 왜곡된 민족의 삶에 대한 고발을 다룬 작품군, 역사 사회적 조망하게 한국전쟁의 의미를 탐색한 작품군이 있음을 살펴해보았다.

Ⅲ장에서는 윤흥길 분단 소설 속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특징과 그 기법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작품 속에서 '유년의 관찰자'로 제시되는 서술은 전쟁의 외상으로부터 벗어나 분단 문제에 대한 탈이념적인 인식과 전쟁의 비인간적인 폭력성을 연계시키면서 미학적 효과를 거두고 있었다. '성년의 경험자'는 재난의 충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수난자의 모습뿐만 아니라 생활인으로서 역사적 질곡을 감내하고 극복하려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회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상처와 비극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종의 '자기 치유'이자 민족적 치유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으며, 비극의 기억과 재생은 이렇듯 민족적 치유의 일면으로 분단 극복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방법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윤흥길 소설의 주제형상화는 주로 아이러니라는 기법의 힘을 얻으면서 완성되고 있었다. 아이러니는 본질적으로 복잡성을 띠고 있으며, 이런 복잡성은 어떤 대상을 한 방향에서만 생각하는 편협함을 극복하고, 복잡하게 얽혀진 혼란 속의 모순점들을 양면성으로 포괄한다. 즉, 전쟁과 분단에 대한 작가의 복합적 인식은 아이러니라는 기법적인 면과 결합되어 화해와 결합을 갈망하는 주제의식으로 나아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뮤크(D.C.Muecke)가 제시하는 아이러니 유형을 기준으로 '상황의 아이러니', '말의 아이러니', '순진성의 아이러니'로 나누어 그에 따른 주제의 구현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윤

홍길 분단소설 안에서 역설적인 표현과 무지한 화자의 서술 등으로 나타나는 아이러니 기법은 분단과 전쟁의 상황을 보다 비극적으로 제시하는 매개체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상황의 아이러니, 말의 아이러니, 순진성의 아이러니는 민족의 비극성과 현실의 한계에 대해 극적으로 묘사하면서 소설의 주제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장치가 되고 있었다.

IV장에서는 III장에서 도출한 분단인식의 구조와 기법들이 각각의 작품 속에서 어떠한 형식으로 표출되고 극복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분단 극복의 양상은 현실인식을 기초로 한 주인공의 대응자세 내지 주제의식의 표출 양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본 항은 논란이 되고 있는 윤홍길 작품의 결말이 갖는 ‘화해의 성격’도 아울러 규명하였다. 윤홍길은 우리 민족의 분단을 극복하는 방식으로 토속적 정서와 모성애를 소설 속에 제시하고 있다. 또한 샤머니즘을 분단현실을 깨부수는 구체물로가 아니라 민족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모성애’와 ‘토속적인 것’ 이 두가지 요소가 화해의 실마리로 작용하고 있음을 볼 때,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형성된 갈등의 골을 메울 수 있는 핵심은 가족과 민족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모성과 토속적 신앙에 뿌리내리고 있는 민족 공통의 정서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작가는 이념에 의한 이데올로기를 국토와 민족을 양분시켰을 뿐만 아니라 동족상잔의 처참한 전쟁을 야기한 민족 비극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작가는 작품 속에서 이데올로기로 인한 갈등은 얼마든지 해소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두 체제 사이의 진정한 화해를 끌어내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그는 정치나 경제의 영역보다도 민족 공통의 정서를 회복함으로써 분단극복이 가능하고 또 그것이 바로 분단극복의 지름길임을 간파한 것이다.

본 연구는 윤홍길의 분단소설 전 작품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고, 주제의 형상화 과정도 몇 가지에 한정하여 다루었으므로 전모를 파악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윤홍길 소설의 본질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보다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자료

윤홍길, 「황혼의 집」, 『현대문학』, 1970.3

윤홍길, 「장마」, 『문학과 지성』, 1973 봄

윤홍길, 「양」, 『현대문학』, 1974.1

윤홍길, 「무지개는 언제 뜨는가」, 『창작과 비평』, 1978.4

윤홍길, 「기억 속의 들꽃」, 『장마』, 민음사, 1980

윤홍길, 「무제」, 『장마』, 민음사, 1980

2. 논문 및 비평

구모룡, 「권력의 생태학」, 『작가세계』, 1993 여름.

권성임, 「분단 소설 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2000.

권오룡, 「진실과 해학」, 『존재의 변명』, 문학과 지성사, 1989.

김갑수, 「신구세대의 6·25 소설 비교」, 동국대 석사논문, 1984.

김교선, 「윤홍길의 작품세계」, 『현대문학』, 1982.4.

김병익, 「불화의 세계와 그 인식」, 『문학과 지성』, 1977.겨울.

김병익, 「분단의식의 문학적 전개」, 『문학과 지성』, 1979 봄.

김송은, 「윤홍길 소설 연구-시점과 서사적 거리를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논문, 2000.

- 김수진, 「윤홍길 소설의 주제와 기법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2000.
- 김윤식, 「6.25와 우리 소설의 내적 형식」, 『한국문학』, 1985.6.
- 김영화, 「장마와 무지개」, 『월간문학』, 1987.6.
- 김우중, 「좌절과 극복의 상흔」, 『문예중앙』, 1977 겨울.
- 김지연, 「윤홍길의 초기 성장소설 연구」, 충북대 석사논문, 1999.
- 김진석, 「무제에서 무제로 떠나가다」, 『작가세계』, 1993 여름.
- 김치수, 「운명과 극복-윤홍길 작품세계」, 『문학과 비평의 구조』, 문학과 지성사, 1984.
- 김 현, 「생활과 신비」, 『문학과 유토피아』, 문학과 지성사, 1984.
- 박대호, 「소설의 세계관 이해와 그 문학 교육적 적용 연구」, 서울대 박사 논문, 1990.
- 성민엽, 「소시민적 갈등의 진정성」, 『꿈꾸는 자의 나성』, 문학과 지성사, 1987.
- 심정민, 「분단소설의 변모양상 연구」, 중앙대 석사 논문, 1994.
- 오명숙, 「전쟁을 배경으로 한 이니시에이션 소설 연구」, 인하대 석사 논문, 1997.
- 오생근, 「정직한 삶의 불투명성」, 『문학과 지성』, 1976. 겨울.
- 유임하, 「현대 한국소설의 분단인식 연구」, 동국대 박사논문, 1997.
- 유지형, 「분단 소설 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1999.
- 장양수, 「이데올로기 소설」, 『한국의 문제소설』, 집문당, 1994.
- 천이두, 「묘사와 실험」, 『장마』, 민음사, 1996.
- 최유찬, 「대립적 세계와 화해의 조건」, 『리얼리즘 이론과 실제 비평』, 두리, 1992.

- 추들란, 「전쟁체험의 이니시에이션 소설 연구」, 건국대 석사 논문, 1995.
- 한민수, 「1970년대 분단소설 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2001.
- 한용환, 「오만한 어조와 준엄한 문학」, 『동서문학』, 1988.11.
- 홍기삼, 「이데올로기의 민족적 해체」, 『창작과 비평』, 1979 겨울.
- 홍성원, 「한국전쟁에 대한 새로운 조명」, 『문학과 지성』, 1973 여름.
- 홍인철, 「한국현대소설의 이데올로기 수용 양상 연구」, 한국외대 석사논문, 2000.
- 홍정선, 「깨어있는 자의 시선과 세계」, 『우리시대 우리작가 10』, 동아출판사, 1987.
- 황영숙, 「윤홍길 소설의 여성인물과 이미지 연구」, 『현대소설연구3』, 1995.12.

3. 단행본

- 강만길, 『분단시대의 역사의식』, 창작과 비평사, 1978.
- 강진호, 『1970년대 문학 연구』, 소명출판사, 2000
- 강진호, 『현대 소설사와 근대성의 아포리아』, 소명출판사, 2004
- 구수경, 『한국소설과 시점』, 아세아문화사, 1996.
- 구중서, 『분단시대의 문학』, 전예원, 1981.
-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민음사, 1993
- 김병익 · 김현, 『우리시대의 작가연구 총서-윤홍길』, 은애출판사, 1979
- 김용재, 『한국소설의 서사론적 탐구』, 평민사, 1993.

김우중, 『한국현대소설사』, 성문각, 1982
김원일, 『사랑하는 자는 괴로움을 안다』, 문이당, 1991
김용재, 『한국소설의 서사론적 탐구』, 평민사, 1993
백낙청, 『분단시대와 한국사회』, 까치, 1985.
오세영, 『문학연구 방법론』, 반도출판사, 1988.
우한용, 『한국현대소설담론 연구』, 삼지원, 1996
유임하, 『분단현실과 서사적 상상력』, 태학사, 1998.
이상섭, 『문학비평 용어사전』, 민음사, 1999.
이재선, 『현대한국소설사』, 민음사, 1991
조건상, 『한국현대소설가론』, 태학사, 2001.
천이두, 『한국소설의 흐름』, 국학자료원, 1998.
홍성호, 『문학사회학과 그 이후』, 문학과 지성사, 1995

4. 외국논저

D.D.Mueck, 문상득 역, 『아이러니』, 서울대 출판부, 1986.
G.Lukacs, 차봉희, 편저, 『루카치의 변증유물론적 문학이론』, 한마당, 1991
M.H.Abrams, 최상규 역, 『문학용어 사전』, 보성출판사, 1994.
R.Wellek & A.Warren, 이경수 역, 『문학의 이론』, 문예출판사, 1988.

ABSTRACT

A Study on Division Novel by Yoon, Heung Gil

- Centering around Epic Feature and
around Concrete Expression Aspect of Subject -

Kim So Hee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Korean War and the Divided Korean Peninsula' have been addressed and given relative importance as the subject matter in Korean literature.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novels dealing with the divided country will continue to expand the meaning i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Those novels have tried to overcome the current national and personal troubles due to the divided condition of Korean peninsula.

The paper focused on Yun Heung-gil's novels among many works in a genre of the divided Korea, and examined the concept and development of the novels dealing with the divided country, following by full-scale discussion. The novels dealing with the divided country are defined to the literary works that were written or created by the affected subject in the South Korea under the divided condition and that were based on right awareness of history and the divided state. Also, it has to show not only a

developmental view of unity that will help Korea overcome the current divided condition, but also the prospect of unity.

Next, the paper studied the meaning and characteristics of the divided state by analyzing the subject and writing in his novels. In the novel, a narrative from 'a child observer' has had an aesthetic effect: connecting post-ideological views on the divided condition to inhuman violence, and getting out of the war trauma. 'The experienced adult' has endured and dealt with the historical fetters as a person of life, as well as received the impact of the war disaster passively as a sufferer. It is not a personal retrospection, but an effort of 'self-healing' or a national healing to overcome the wound and tragedy of the war. In some way, the memory and reproduction of the tragedy have offered a potential chance to overcome the divided state as a part of a national healing.

Besides, irony represented in paradoxical expression and ignorant speaker's narration has presented the tragedy of the divided state and war condition as a medium.

Consequently, the writer suggested that the ideological beliefs caused the peninsula and nation to be divided and that it is the cause of the national tragedy, resulting in a wretched fratricidal war. Also, the writer made an effort to reconcile the two systems, with confidence that the ideological conflict can be resolved as much as he wants in his work. That is, Yun Heung-gil's short and middle stories in a genre of novels dealing with the divided country focuses on the violence, misery, and suffering of war as a disagreement doing humanity a harm, rather than the historical

meaning of war itself and the tragedy of ideological conflict. In other words, his novels seek for a national meaning that will help us overcome the divided condition for harmonization, along with personal meaning of troubles and getting older in war.